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105호 (2008년 4월 다섯째 주)

관광산업연구실·관광지식정보

문화·체육·관광 통계 '한눈에 쪽~' (문화체육관광부)	3
대통령직인수위 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 발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4
청와대 앞길 5월부터 시내버스 다닌다 (청와대)	5
관광브랜드 '코리아 스파클링' 첫돌 (문화체육관광부)	5
지자체 축제 브랜드화 활발 (특허청)	6
화장실,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든다 (행정안전부)	7
국립박물관·미술관 14곳 5월부터 무료 (문화체육관광부)	8
장항선 직선화 등 31개 간선철도 확충에 1조4천억 투자 (국토해양부)	8
문화부, 게임산업 적극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10
외국인 관광객들 "명동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12
2008년 한국관광공사 업무보고 (문화체육관광부)	13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봄나들이 (문화재청)	14
이 대통령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창의·실용 모범사례" (청와대)	14
유인촌 문화 "옛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14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MOU 체결 (외교통상부)	15
[서울특별시] 서울 관광하다 아플 땐 외국인 진료소 찾으세요	16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2010년 서울 지도 '문화'로 다시 그린다	17
[부산광역시] 해외크루즈 유치마케팅 강화	19
[부산광역시] 한류스타 송승헌 부산에서 팬 미팅, 일본 관광객 유치로 부산관광수지 개선기대	20
[대전광역시] "역사학습의 장" 선사박물관 개관 1주년 맞아	20
[대전광역시] 찾아가는 맞춤형공연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21
[인천광역시] 관광호텔 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22
[울산광역시] 부·울·경 발전협의회 8년의 성과	22

[광주광역시]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	23
[광주광역시] 중국·일본 관광객 유치 위한 팸투어 실시	24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 유치·지원 전략회의 개최	25
[경기도] 경기국제보트쇼 및 국제도자페어 등 道 주관 축제 전방위 홍보 나서	25
[경기도] 경기국제보트쇼 경기정 공개 및 성공기원제 실시	26
[경기도] 『덕포진 관광지』 지정 승인	27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해외문화유적 탐방 나서	27
[충청북도] 도 대표단 중국 길림성 방문, 청주·장춘 공항과 항로개설 등 합의	28
[경상남도] 외국인투자기업 CEO 초청 '남해안시대 글로벌 마케팅'	28
[전라남도] 남도 향기 가득한 여름 관광상품 찾아주세요	29
[전라남도] 전남서 국제스포츠산업포럼·요트세미나 등 개최	30
[전라남도] 골프장 과잉공급시대 공격적 마케팅으로 극복한다	31
[제주특별자치도]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관광자원 발굴	32
[제주특별자치도] 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체결시행	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전개	3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서부권에 종합휴양형 블랙나이트리조트 조성	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평화센터(밀랍인형전시관), 평화교육·학습체험장으로 관광객에게 인기	35
[제주특별자치도] 웰컴 투 세계자연유산	3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지구, 탐방객 맞이 '변신 중'	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향토문화체험장 오픈	37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 개최 최적지로 입증된 제주	37
[해외동향] 美 크루즈산업, 올해에도 전망 낙관 (KOTRA)	42
[해외동향] 멕시코,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노력 (KOTRA)	44
[해외동향] 스페인 빌바오시 문화마케팅 도시재생 프로젝트 (KLAFIR)	47
[언론동향] [전시·컨벤션 미래 성장동력이다] ①세계는 컨벤션 전쟁중	48
[언론동향] [전시·컨벤션 미래 성장동력이다] ②국내 컨벤션산업의 현주소	50
[언론동향] [전시·컨벤션 미래 성장동력이다] ③컨버전스가 미래의 길	52
[언론동향] 골프장 '좋은 시절' 다 지나갔나	54
[언론동향] 지방골프장 가격경쟁력 'UP'	55
[언론동향] 골프장協 '불어라~ 골프 한류 바람'	56

문화·체육·관광 통계 '한눈에 쏙~'

'문화부 통계포털' 1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시

6000여 통계표 등 다양한 자료 통합 체계적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http://culturestat.mcst.go.kr>)은 60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통계표를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궁금하다면?', '성인 건강체력 기준치가 알고 싶다면?', '연도별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자수를 확인하려면?'

문화예술·산업·관광·체육 분야의 복잡한 통계정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는 사이트가 탄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5일 소관 국가통계에 대한 통계포털서비스 시스템인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http://culturestat.mcst.go.kr>)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화부 통계포털은 관련 분야별 통계 12종 6000여개의 통계표를 조회·검색 시스템을 통해 방문자들에게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 통계포털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산업분야에서 ▲문화산업 통계 ▲광고산업통계, 문화체육분야에서는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 실태조사 ▲국민체력 실태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또 문화관광분야의 ▲관광지방문객 보고통계 ▲호텔이용객 동태보고 ▲한국관광 통계 ▲국민여행 실태조사 ▲국민해외여행 실태조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등 자세한 자료를 실고 있다.

이밖에 문화부 통계포털은 각종 통계간행물 다운로드, e-book 서비스, 통계관련 뉴스 및 칼럼정보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포털

분야별통계 STATISTICS | 통계검색 SEARCH | 정보마당 INFORMATION | 알림마당 BOARD | 고객센터 SERVICE CENTER

통합검색

공지사항 | 통계뉴스도움말

- '2007 국민체육실태조사' 결과... 2008.03.04
- '제5기 문화관광부 대학생기(자)단... 2008.02.14
- 2008년 일일명품 지역문화 확산... 2008.01.30
- 소크 분석 요청 최종 결과 발표... 2008.01.30
- 문화예술교육 4차 프로그램 '문화예... 2008.01.30
- 문화관광부 시무식... 2008.01.04

주요통계자료

공공도서관 현황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개소	543	671	687	514	546
면적(㎡)	17,531	17,209	18,472	17,031	17,031
회차(천권)	13,024	173,658	172,611	311,489	265,911

다양한 통계 | 최신등록 통계

조사대상자 특성 - 지역별 연령별 인구분포
여행 전 다른 국가 방문 경험 여부
지역별 연령별 조사대상자 수
물담자 특성별 분포
조사대상자 특성 - 지역별 집단 무수
여행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

문화부 통계포털 시스템 구축은 지난 200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및 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의 일환으로 문화부 국가통계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정보를 수요자에게 '원스톱'(One-Stop)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문화부는 이번 통계포털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통계정보를 확대해 이용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통계정보포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통계포털 대국민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통계포털 방문자를 대상으로 통계퀴즈 맞추기, 배너달기, 포털 개선의견 제안하기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MP3 플레이어, USB 메모리, 문화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2008.04.14)

대통령직인수위 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 발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 이경숙·숙명여대 총장) 활동을 총정리한 인수위 백서가 발간됐다.

별책 2권으로 편집된 인수위 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은 국민성공시대를 이룩하고, 그 국민 성공을 온 국민이 고루 나누자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다.

「성공 그리고 나눔」1권은 백서의 기록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의 시대정신과 국정철학, 인수위에서 분과별로 활동했던 주요 국정지표별 핵심정책 그리고 인수위 활동 보고서, 대변인 보도자료와 브리핑 자료들로 인수위 활동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2권은 인수위 구성과 중점 활동,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이명박 대통령시대 개막 그리고 인수위 현장 스케치 등으로 인수위 활동을 과정과 현장 중심으로 편집했다.

특히 2권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10개의 쟁점과제를 선정해 과제별로 과제의 선정과 논의 과정 그리고 결과물을 도출한 마디마디를 상세히 소개하는 「쟁점정책 도출과정」 챕터를 마련했다.

또 작가를 동원해 작가적 관점으로 인수위 활동을 성역없이 관찰하고 취재한 32편의 「현장 스케치」를 소개함으로써 인수위 활동의 객관적 관점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시도했다.

인수위 백서는 8,000부를 발간했고 실무적 준비를 마치는 대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과 학계,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에게는 대형 서점과 인터넷 서점을 통해 실질 제작비(15,600원)로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는 백서 발간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백서발간팀 | 등록일: 2008.04.14)



청와대 앞길 5월부터 시내버스 다닌다

월 1회 청와대 관람도 매주 토요일로 확대

그동안 보안과 경호상의 이유로 통제해 왔던 청와대 앞길에 오는 5월 1일부터 일반 시내버스가 운행된다.

문민정부 이후부터 청와대 개방 수준이 꾸준히 진전되어 왔지만,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게 된 것은 건국 후 처음이다.

청와대 앞길을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정한 청와대는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노선은 남대문에서 출발해, 시청,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서문, 청와대 앞(분수대, 춘추관), 경복궁 동문, 서울신문사를 거쳐 다시 남대문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이 같은 노선은 지하철 이용객의 편의도 고려한 것으로 지하철 1,2,3,4,5호선과 쉽게 연계 환승할 수 있다.

신설되는 시내버스는 청와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인근 주민과 직원들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운행되는 시내버스의 색깔은 초록색, 버스번호는 8000번이며, 하절기(3~10월)는 05:30~20:00까지, 동절기(11~2월)는 06:00~19:00시까지 운행된다.

청와대는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와대 앞길을 방문하는 가족단위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버스가 운행되는 5월부터는 지금까지 매일 마지막 주 토요일에만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던 청와대 관람도 매주 토요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와대 | 등록일: 2008.04.14)

관광브랜드 '코리아 스파클링' 첫돌

15일 기념행사...아시아나 비행기 50대 로고 부착

우리나라의 관광브랜드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이 첫돌을 맞이했다.

한국관광공사는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관광공사 T2마당에서 '코리아 스파

클링' 선포 1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일반 국민 및 외국관광객의 축하메시지 상영, 브랜드 홍보대사 위촉패 수여,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기념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지철 관광공사 사장, 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중국의 '중귀칭넨바오' 미국의 '월드 저널' 등 해외 16개국 31명의 언론인이 초청됐다. 이들은 약 1주일간 국내에 머물면서 우리나라 주요 관광지를 취재할 예정이다.

기념식에 앞서 이날 오전, 오지철 관광공사 사장과 박찬범 아시아나항공 부회장은 공사 회의실에서 '코리아 스파클링'의 공동 마케팅 조인식을 갖는다. 아시아나측은 국제선 항공기 50대에 관광브랜드 로고를 부착하고, 공사와 공동으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기내 한국관광 소개영상을 방영하고 기내지에 한국관광 홍보기사를 게재한다. 공사측은 해외 주요지역 인쇄광고에 아시아나항공 CI를 홍보한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인식은 세계 각지에 취항하는 항공사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관광을 홍보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이라며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창을 형상화한 코리아 스파클링 로고는 각각 과거와 미래를 상징하는 창이 또 하나의 창을 만드는 형태를 하고 있다.

가운데 창은 세계가 한국을, 한국이 세계를 보는 창이라는 의미다. 빨간색과 초록색은 조선시대 왕비의 대례복에서 따왔다. 또 홍보문구 중 '스파클링'은 외국인이 이 단어를 '생기를 회복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따온 것으로 '코리아 스파클링'은 '한국관광을 통해 내면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2008.04.14)

지자체 축제 브랜드화 활발

- 지방자치단체 5곳 중 1곳 축제관련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를 '지역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 상표 등록 등을 통한 브랜드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익산시는 매년 가을에 여는 꽃 축제인 '천만송이 국화 축제'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 지난 2월 상표로 등록했다. 경기도 양평군도 매년 10월 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드는 용문산 광장에서 여는 '양평은행나무 축제'의 업무표장을 등록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축제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등록한 상표/서비스표 및 업무표장은 49건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축제의 브랜드화에 적극적인 것은 '축제'라는 브랜드 파워를 통해 지역 이미지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함평군의 경우 '함평나비대축제'를 통한 지역 브랜드 전략을 통해 적지 않은 마케팅 경영수입을 올리고 있고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보령시가 상표 등록한

‘보령 머드축제’도 지역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축제화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자체가 등록한 축제의 브랜드를 살펴보면 지역특산품이나 자연환경을 주제로 많이 등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역특산품을 살린 상표/서비스표로는 전남 담양군의 『담양대나무축제』, 전북 순창군의 『순창고추장축제』, 경북 영양군의 『고추문화축제』, 경기도 파주시의 『파주장단콩축제』 등이 있고, 자연환경과 관련하여서는 경기도 부천시의 『원미산진달래축제』나 강원도 태백시의 『태백산눈축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상표나 서비스표 출원시 고려해야 할 사항〉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축제’와 관련된 브랜드를 등록 받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명과 상품의 명칭이나 상품의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단어들로만 구성하기 보다는 지자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로고와 문자를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특허청 | 등록일: 2008.04.15)

화장실,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든다

- 행안부, 화장실 선진화·세계화 선포식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4.16(수)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수원)에서 원세훈 행안부장관, 심재덕 세계화장실협회장, 화장실관련 기업대표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장실 선진화·세계화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행안부는 화장실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전국 공중화장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래시장 등 취약 화장실에 대한 집중적인 시설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건물주의 자율적인 시설개선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급제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화장실 용품지원, 전기료 감면 등을 통해 주유소, 상가 등 민간 개방화장실을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07년 7,100개 → ’17년 12,000개) 화장실 이용시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2008 베이징올림픽, 2010 상해엑스포 등에 대비한 중국의 화장실 개선수요와 인도·동남아를 비롯한 향후 세계 화장실시장 규모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 화장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화장실협회 및 관련업계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수준의 화장실 공동브랜드를 금년 중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 화장실 산업은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 절수형 변기 등 친환경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세계 70개국이 참여한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서울 개최 등 화장실 혁명 선도국가로서 국제적 신인도를 바탕으로 우리 화장실 산업의 세계진출 확대 계기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 행안부는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임에도 1인당 물 소비량이 OECD 국가의 2~3배에 달하고, 변기를 통해 소비되는 물 사용량이 연간 10억2200만톤, 비용으로는 연간 7천억원에 육박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우선 공공기관부터 친환경 절수형 변기의 보급 확대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변기는 1회 물 사용량이 10~15ℓ, 소변기는 3~4ℓ 정도인데, 기술의 발전으로 대변기는 1~4ℓ, 소변기는 심지어 물을 쓰지 않는 제품도 시판되고 있다.

원세훈장관은 선포식에 이어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전, 우수제품 전시관을 참관하고 관련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 등록일: 2008.04.15)

국립박물관·미술관 14곳 5월부터 무료

문화부, 건국 60주년 기념 연말까지 시범 실시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14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시관이 무료로 개방된다.

문화부는 15일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무료관람을 시행한 뒤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국립박물관 등에 대한 과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무료로 공개하는 전시는 상설전시만으로 상설전시가 아닌 기획전시는 종전과 같이 입장료가 부과된다.

또 주차장도 대중교통 이용장려를 위해 종전처럼 유료로 운영된다.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권도 유지되므로 관람객은 각 매표소에서 무료관람권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30인 이상 초·중·고등학생 단체의 경우 각 박물관 및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해당기관은 무료관람 실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관람객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전시실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경비 안내 요원을 추가로 증원해 불상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관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무료관람 요령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문화정책과 김울림(echoes@museum.go.kr) | 등록일: 2008.04.15)

장항선 직선화 등 31개 간선철도 확충에 1조4천억 투자

수도권 전철, 양평군 신원·아산시 신창까지 연장 운행

국토해양부는 올해 간선철도의 신설, 개량, 복선전철화 31개 사업에 총 1조4,178억원을 투자하는 등 간선철도망을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통하는 구간으로는 장항선 천안~온양온천~신창간 복선전철(22.2km), 장항선 신창~

대야간 개량(92.7km), 중앙선 팔당~신원 구간(13.0km) 등 총 128km이다.

이에 따라 천안, 팔당까지 운행 중인 수도권 전동차가 각각 아산시 신창 및 양평군 신원까지 연장 운행됨으로써, 충청 서부지역 및 경기 동부지역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앙선은 앞으로 2009년 용문까지 복선전철화를 완료하여 수도권 전철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행사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의 일환으로 2011년 KTX 여수노선 개통을 위하여 전라선 익산~순천~여수 복선전철(194.2km), 경전선 동순천~광양 복선화(10.9km) 사업에 총 2,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마산, 진주권 KTX 운영을 위한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101.4km) 사업에도 2,0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 전철의 수혜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경춘선 금곡~춘천간 복선전철(64.2km)과 인천공항철도 2단계(김포공항~서울역간 20.7km)의 조기개통을 위해 2,660억원이 투자되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53.7km)도 587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촉진한다.

BTL(임대형 민자사업)로 추진되는 소사~원시 복선전철(23.1km) 사업은 2007년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올해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경부선 군포역과 의왕역 사이에 당정역을 신설하고 병점차량기지에 역을 설치하는 사업도 각각 실시계획 협의를 거쳐 연내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가철도망의 확충 및 물류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들도 추진된다.

동해축의 포항~삼척간 철도신설사업(165.8km)은 지난 3월 착공하였으며, 울산~포항간 복선전철(73.2km)은 실시계획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착공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승(평택항)~평택역간 산업철도(27.0km)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산선 익산~대야 복선전철(11.0km) 외 3개 사업은 설계를 시행한다.

〈2008년도 간선철도 주요 사업계획〉

1. 개통사업

구 분	사업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08투자 (억원)	비 고
개량·현대화	장항선 개량	92.7	15,704	2,600	단선 개량
수도권 전철 연장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	16.5	5,246	350	단선→ 복선전철화
	온양온천~신창 복선전철	5.2	248	106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팔당~신원 구간 부분개통	13.0	17,160	1,960	

2. 주요 투자사업

구 분	사업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08투자 (억원)	비 고
여수 EXPO 지원 KTX 투입	전라선 복선전철	154.2	4,862	700	단선→ 복선전철화
	순천~여수 복선전철	40.0	6,429	950	
	동순천~광양 복선화	10.9	3,137	450	단선→복선화

- 주요 투자사업 (표 계속)

구 분	사업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08투자 (억원)	비 고
마산·진주권 KTX 투입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101.4	14,878	2,075	단선→ 복선전철화
수도권 전철 확대	경춘선 복선전철	64.2	19,772	1,380	단선→ 복선전철화
	인천공항철도 건설	61.5	10,885	1,280	복선전철 신설
	성남~여주 복선전철	53.8	18,533	587	복선전철 신설
	소사~원시 복선전철	23.1	17,770	10	복선전철 신설
	당정역 신설	-	-	-	역 신설
	병점차량기지 역 신설	-	-	-	

3. 신규 착수사업

구 분	사업명	연장 (km)	사업비 (억원)	'08투자 (억원)	비 고
신규 착공사업	포항~삼척 철도건설	154.2	29,495	300	단선 신설
설계 중 사업	울산~포항 복선전철	73.2	25,656	100	단선→ 복선전철화
	대구선 복선전철	36.4	9,303	40	
	군산선(익산~대야) 복선전철	11.0	3,956	9	
	여주~충주~문경 철도건설	95.8	17,206	20	단선 신설
기본계획 수립	포승~평택 철도건설	27.0	4,121	7	단선 신설

(국토해양부, 담당: 건설철도과 과장 윤왕로·사무관 김태형(2110-8784) | 등록일: 2008.04.16)

문화부, 게임산업 적극 육성

게임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유 장관 “게임산업은 신성장동력이자 고용창출 산업”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육성, 불법복제 근절, 세계시장 진출 지원 등 게임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15일 문화콘텐츠산업복합공간(C3: Culture & Contents Complex)에서 진행된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대표적 콘텐츠 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고용창출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게임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와 글로벌 경쟁력, 우수한 인력자원을 감안할 때 향후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IPTV 등 미디어 융합의 컨버전스 시대에 게임산업은 미디어를 주도하는 핵심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장관은 “새 정부는 게임산업이 청년실업, 특히 우수한 여성인력의 고용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보는 기대가 크다”며 “새 정부는 게임이 가지는 경제적·문화적 위상을 국민들께 사실대로 알리고,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게임산업 무역수지 규모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E)	2008(E)
수 출	172,743	387,692	564,660	671,934	789,593	908,032
수 입	166,454	205,108	232,923	207,556	249,067	286,427
무역수지	6,289	182,584	331,737	464,438	540,526	621,605

출처: 대한민국 게임백서 2007

➔ 주말 및 휴일의 국민여가활동 (단위 : %)

	TV 및 비디오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 일
복수응답	52.9	10.8	6.5	2.0	9.0	16.1	15.0	30.2	45.1	25.6
남 자	54.6	12.7	5.0	3.3	14.2	21.6	11.3	14.5	48.5	25.5
여 자	51.3	8.9	8.0	0.8	3.9	10.8	18.5	45.2	41.9	25.7

(동계형, 2007년 사회동계조사)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 장관은 현재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성장 유지의 기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해외 거대 기업의 세계 게임시장 주도 흐름 속에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술 융합형 게임을 개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우리 게임산업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능을 재배분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게임산업진흥 기능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역량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건전게임문화 조성 방안과 게임콘텐츠 수출 활성화 등 2가지 주제로 나누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건전게임문화 조성 방안으로는 ▲민관협력 ‘(사)게임문화재단’ 설립과 공동협력 추진 ▲유관 부처 및 기관 연계 게임문화교육의 전국확대 실시 ▲소외계층 게임여가문화 인프라·장애인 고용창출 확대 ▲기능성게임 포럼 운영·홍보 및 보급 ▲e스포츠의 대한체육회 정식스포츠 종목화 요건 충족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 위상 강화 등이 제시됐다. 또한 게임콘텐츠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규시장 개척 및 취약 플랫폼 활성화 ▲게임관련 대 중국 협력 창구 마련 ▲글로벌 게임콘텐츠 B2B 서비스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등이 대책으로 논의됐다.

업무보고에는 유 장관을 비롯해 김재원 콘텐츠 정책관, 나종민 정책기획관, 유병한 대변인 등이 배석했으며 게임산업진흥원측에서는 최규남 원장, 김용관 게임아카데미 본부장, 서태건 산업문화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업무보고를 마친 유 장관은 문화콘텐츠산업복합공간내 'OMSU 센터'(One Source Multi Use)와 애니메이션센터를 방문했다.

이어 동북아 IT 산업 허브 구축을 목표로 세워진 누리꿈스퀘어의 공동제작센터, 특수촬영스튜디오, 디지털 파빌리온 영상관(4D) 등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게임산업과 신종필(ok2dream@mcst.go.kr) | 등록일: 2008.04.16)

외국인 관광객들 "명동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한국관광공사 실태조사...1인당 평균 1273달러 지출

서울 명동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의 마음을 휘어잡은 관광지로 떠올랐다. 또 관광객의 1인당 지출경비가 평균 1272달러로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16일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여가/위락/휴가'가 42.2%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전문활동'이 40.3%였다. 방문동기(이하 중복응답)로 '가까운 거리'를 든 외국인은 45.4%였고, '음식/미식탐방'이 41.7%였고 '쇼핑'이 41.5%였다. 한국여행에 대한 정보습득 창구는 '인터넷'이 56.9%로 가장 많았으며 '친지/친구/동료'가 50.3%로 뒤를 이었다. 평균 체재기간은 6.3박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서울이 73.4%로 가장 많았지만 그 비율은 해마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19.1%), 부산(18.8%), 제주도(13.8%)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 내 방문지는 명동(55.1%), 동대문시장(50.3%), 남대문시장(49.8%), 고궁(47.7%) 순이었다. 특히 명동은 고궁을 제치고 가장 인상 깊은 방문지(21.7%)로도 뽑혔다.

외국인이 한국을 찾은 기간 동안 주로 하는 활동은 '쇼핑'이 65.5%로 가장 많았고, '관광지 방문'(59.3%), '식도락'(33.2%)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상품은 '식품'(38.1%), '의류'(26.7%), '김치'(21.7%), '인삼/한약재'(21.4%) 순이었다. 쇼핑장소로는 '공항면세점'(51.1%)과 '백화점'(27.5%)이 주로 이용됐고, '소규모 상점'은 26.6% 수준이었다. 관광객 1인당 지출경비는 평균 1273달러로 2006년 1194달러에 비해 늘었다. 특히 싱가포르(1722달러)와 중동(1727달러)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체재기간이 긴 미주 및 유럽 관광객의 지출경비가 높았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여행 만족도는 평균 4.07점(5점 만점)으로 2006년 4.08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출입국 절차'가 4.04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광정보 입수 용이성'이 3.67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여행 중 불편했던 사항은 '언어소통불편'(60.9%), '비싼 물가'(29.3%), '교통혼잡'(21.9%) 순이었고 인상 깊었던 점은 '친절한 사람'(55.9%), '맛있는 음식'(46.0%), '안전함'(42.7%) 순이었다. '3년 내 다시 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관광객은 전체의 70.9%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인천항, 부산항에서 한국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1만14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공사는 여행업계와 관련기관이 이번 조사결과를 외래관광객 유치 및 소비증대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전문은 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 T2지식마당)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한국관광공사 시장조사팀 최석범(khuncsb@mail.knto.or.kr) | 등록일: 2008.04.16)

2008년 한국관광공사 업무보고

- 2008년 외래객 700만 명 유치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는 2008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국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장관에게 한국관광공사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등이 보고되었으며, 한국 관광산업 발전과제에 대한 참석자 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에 노력

한국관광공사 오지철 사장은 업무보고에서 현재 한국관광산업은 ▲국내 관광인프라 부족 ▲ 높은 물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공사는 시장별 특화 상품 및 컨벤션 유치,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문화관광브랜드 Korea Sparkling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으로 외래객 645만 명 유치에 기여하였고, 구석구석 캠페인 등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촉진,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수용태세와 인프라 구축 등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나타냈으나, 안내체계 등 수용태세 개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국관광공사 2008년 외래객 700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62억불 목표 설정

공사는 2008년 사업목표를 ▲외래관광객 700만 명 유치 ▲관광수입 62억불 달성 ▲고용 88만 명 창출 ▲국민의 국내관광총량 5억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일본, 중국시장 중심으로 글로벌 마케팅 강화, ② 한국관광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 ③ 경쟁력있는 미래지향적 관광상품 개발 ④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 및 지역관광 활성화 ⑤ 3대 관광수용태세(안내, 숙박, 음식) 중점개선 등에 중점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한국방문캠페인(2010-2012)의 성공적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토론 개최

이밖에 의료관광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 내 '의료관광활성화위원회'(가칭) 구성 등을 장관에게 건의하였고, 업무보고 후에는 참가자들이 한국방문캠페인(2010-2012)의 성공적 추진 방안,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민간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새로운 관계정립 ▲지방관광공사 등 타 공공부문의 파트너십 강화 ▲열린 경영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통해 명실상부한 관광진흥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한국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누구나 편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여건을 개선하는데 공사가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2008.04.17)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봄나들이

문화재청 동구릉관리소(소장 이승희)는 구리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원을 받아 매일 3회(오전 10시, 오후 1시, 3시) 조선왕릉 해설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4월로 접어들면서 동구릉의 온갖 나무들이 저마다 연초록빛으로 물들어 산과 왕릉이 완연한 푸른 색조로 치장하기 시작했고, 진달래·개나리·벚꽃들도 만개해 관람객 맞이에 한창이다. 봄이 머무는 동구릉에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조선왕릉 역사기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문화관광해설사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구릉 관람객이면 누구나 지정된 시간에 정문에서부터 맛깔스런 해설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

매월 2, 4째 토요일은 초·중·고 학생들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니 주말을 이용해 초록의 향연이 한창인 동구릉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문화재청, 동구릉관리소(031-563-2909) | 등록일: 2008.04.17)

이 대통령 "함평 나비·곤충엑스포, 창의·실용 모범사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막식 축하 영상메시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나비와 곤충을 소재로 하는 엑스포는 세계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발상과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여러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함평 나비·곤충 엑스포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의와 실용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청정한 자연을 관광과 경제에 접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나비축제를 세계적인 엑스포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곤충산업이라는 블루오션을 열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가 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함평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친환경도시로 발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도, 특화된 지역 축제를 세계화하고 친환경 문화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할 수 있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은 함평 주민들의 노고에 높이 치하 드립니다.

이번 엑스포의 큰 성공과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실 | 등록일: 2008.04.17)

유인촌 문화 "옛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008년 4월 18일(금),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는 구 서울역사를 방문했다. 취임 이후 '현장'을 직접 방문,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할 경우 방향을 제시하는 행보의 일환이다.

이날 구 서울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서울역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문화성 그리고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승례문 화재사건을 언급하면서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구 서울역사는 사적 284호인 국가문화재로서 2004년 고속철도 개통으로 그 기능이 신역사로 이관되면서 3년 넘게 폐쇄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전시, 공연, 공모전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 개최와 함께 리노베이션을 추진 중에 있다.

2009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건축설계경기(현상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중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 2009년 11월에 리노베이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 서울역사는 2010년에는 인천공항과 바로 연결될 예정이고 향후 유라시아철도의 시발역 겸 종착역이 될 것이므로, 한국문화의 관문이자 발신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더구나 구 서울역사는 격동의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린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살려 구 서울역사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2009년도 말에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사가 시작되는 금년 12월까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구 서울역사를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2008.04.18)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MOU 체결

빠르면 연내 비자 없이 미국입국 가능...양국관계 업그레이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오후(미국시각) 워싱턴 국토안보부에서 마이클 처토프(Michael Chertoff)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가입을 위한 한-미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해각서 서명 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금번 MOU 서명으로 대한민국의 VWP 가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하고, 한국의 VWP 가입이 양국간 인적 교류를 증진시켜 양국의 실질적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의 미국 VWP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외교부는 금년 말까지 VWP 가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 이행약정 체결: '08.8월까지 완료 추진
- 우리 전자여권 전면발급: '08.9월까지 완료 추진
- 미국측 보안 시스템(전자여행허가제 및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08.9월까지 완료 가능 예상
(※ 미국측 준비 지연에 따른 우리 VWP 가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측과 긴밀히 협조 예정)
- 미국 측 평가단 방한 및 최종 평가: '08.11월까지 완료 추진
 -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미국 입국 희망자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간단한 신원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면, 동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즉각적으로 미국 입국 자격 여부를 심사(현재 호주에서 시행 중)
 - 출국 통제(exit-control) 시스템: 미국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불법체류자 감소, 보안 강화 도모

우리나라가 VWP에 가입할 경우,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 2006년도(미국 회계 연도) 기준 미국 B1/B2 비자 신청자 36만 명에 대한 ① 각종 수수료(비자 수수료(미화 131불), 택배 수수료, 대행 수수료 등) 및 ② 인터뷰 실시를 위한 기회 비용(인터뷰 대기 시간 및 왕래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 계산
- 우리 국민의 편익 제고
- 한-미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한-미 관계의 업그레이드(실질적 동반자 관계로의 이행)

(외교통상부 | 등록일: 2008.04.19)

[서울특별시] 서울 관광하다 아플 땐 외국인 진료소 찾으세요

- 4.15, 서울의료원내에 외국인 진료소(International Clinic) 개소
- 국내 거주 외국인 및 해외 동포 대상으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서울시는 오는 4월 15일부터 서울의료원내에 외국인 진료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을 통한 의료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비용과 높은 의료서비스를 갖춘 서울의료원이 외국인 진료소를 개소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200만 관광객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관광산업에 한층 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외국인 전담 진료소(11개소)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병원(5개소)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료원의 경우 그간 외국인 근로자 전용병원으로서의 위상이 있는 가운데 이번 외국인 진료소를 개소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와는 별도로 서울시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해외 동포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울의료원 외국인 진료소에서는 외국인 진료상담실(암센터상담실 병행 운영)과 외국인 진료실(가정의학과 공용) 및 외국인 전용전화 ARS(3430-0693)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전용창구 등을 마련하여 외국인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병원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원활한 통역을 위해 원내 직원 자원봉사자와 함께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에서는 외국인들뿐 아니라 의료보험제도를 받지 못하는 해외동포들을 위해 해외 한인회들과의 진료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7년 6월에 사이판 한인회와 협약을 맺었고 올해에는 미주한인총연합회와의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11일(금)에는 강남구 자원봉사자센터 자원봉사자들과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으며, 4월 15일 오전 11시에 본관 1층 로비에서 개소식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담당: 서울의료원 김혜민(3430-0414) | 등록일: 2008.04.15)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2010년 서울 지도 '문화'로 다시 그린다

- 문화와 경제가 함께하는 컬처노믹스를 바탕으로 한 『창의 문화도시 마스터플랜』 발표
- 문화예술 부흥 위한 실험적, 창의적 정책시도와 과감한 투자사업 눈길
- 문화와 창의를 원천으로 한 창조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 오세훈 시장, “창의문화도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시민고객 여러분이 될 것”

오세훈 시장은 15일(화), 기자설명회를 통해 문화와 경제가 함께하는 컬처노믹스를 바탕으로 한 서울시의 문화도시리모델링 계획, 『창의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3개 분야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서울시의 마스터플랜은 2008년 오세훈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선언한 '창의 문화도시 서울'의 문화 관련 시책을 집약적으로 총망라, 정리한 이른바 '서울시 문화지도'로서, 2010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문화예술 창의기반과 도시인프라를 구축, 세계인들의 감성을 끌어 당길만한 서울만의 매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겐 문화와 예술이 물과 공기처럼 흐르는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마스터플랜의 핵심전략은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세계 주요도시들과의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강조해온 '문화와 경제의 융합',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문화를 원천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임)이다.

서울시는 이번 마스터플랜을 지도삼아 ▲유휴시설을 문화예술 창작발신지로 재생 ▲유구한 역사복원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투자 활성화 ▲문화특화지역 육성 등의 10대 핵심과제를 골격으로 창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창의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은 서울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다양한 실험적, 창의적 정책과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과감한 투자사업들을 담고 있어 서울에 새로운 문화의 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유휴시설을 문화 예술의 창의 발신지로 - 아트팩토리, 창작 아케이드

도시 곳곳의 유휴시설 및 빈 공간으로 남은 공장, 창고, 폐교 등의 공간을 예술창작공간으로 재생하는 '아트팩토리' 사업을 통해 시민에게는 예술을, 예술가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6개소, 올해 2개소 조성 예정이다.

상권이 죽어 폐허처럼 버려진 지하상가 공간을 문화예술상가로 조성, 예술가에게 부족한 창작실을 제공해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시민은 일상의 문화향유 즐거움을 누린다. 올해는 신당 지하상가와 남부터미널 지하상가에 각각 97실, 121실 조성할 계획인데, 이것은 유례가 없는 대규모 창작공간이기에 주목된다.

'주거·문화 공존형' 신 개념 주택재개발 모델 - 이화주택재개발예정구역

서울시는 대학로와 근접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이화주택재개발예정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을 배치하는 문화·주거 공존의 신 개념 주택재개발 모델을 조성한다. 시범사업의 주거형태는 저층아파트, 옥상정원을 활용하는 테라스하우스, 스튜디오형 아파트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정부수반 유적 6개소 원형복원 - 대한민국 헌정사의 학습산실 만든다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사 및 시대상 대표하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수반 유적 6개소(경교장·이화장·장면 가옥·윤보선 가옥·박정희 가옥·최규하 가옥)를 원형대로 복원, 역사교육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 문화재 지정(등록)과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 추진된다.

성북동에 고품격 전통문화 '체험관광벨트' 조성, 관광자원화

산수가 조화된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해 1970년부터 고급저택과 29개 대사관저, 외국 상공인(CEO) 등의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성락원 등 많은 문화재와 문화시설이 산재해 있는 성북동에 '체험관광벨트'를 조성·운영한다. 또한, 삼청각 재조성 사업을 모태로 해 가구박물관·한옥마을·심우장·길상사 등 지역에 산재된 문화·관광자원과 인근 문화시설과도 연계된다.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아트펀드, 2010년까지 500억 규모로 조성

자금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 작품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예술펀드, 2009년도엔 총 200억 규모로 조성(서울시 50억원, 정부 80억원, 민간 70억원 투자)하며 2010년까지 500억 원 규모로 성장시켜 나아간다.

문화공간 기부채납 시 건폐율 및 용적률 혜택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문화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유지를 문화시설로 이용 시 대부료를 인하하며, 공연장에 대한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세 등) 감면 추진은 '08년 3월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감면조례를 '08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문화공간을 기부채납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문화공간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추진한다.

문화자원 밀집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육성

문화지구인 인사동을 전통문화체험 관광거점으로, 대학로를 공연문화 및 국제예술교류 산실로 육성하며, 인사동·대학로 지역 외 9대 문화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업무, 상업, 문화가 연결된 품의 관광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세계적 뮤지엄을 유치하는 등 예술문화의 새로운 메카로 조성 검토 중이다. 확정되면 노들섬 문화컴플렉스,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된 거대한 문화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국제업무 및 문화시설 조성이 완료되면, 유동인구 연 1억4천명(일 38만 명), 관광객 5,000만 유치, 경제유발효과 67조, 고용창출 36만 명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핵심키워드, '문화'가 돈이 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창의 문화 인구를 70만까지 창출(현재 42만)하며 ▲세계 도시브랜드 가치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고(현재 44위) ▲문화산업비중을 5위까지 확대하는 한편(현재 9위) ▲관광경쟁력을 20위권까지 제고(현재 31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경쟁 도시들이 문화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지금 그 변화의 바람을 선점하느냐 못 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창의 문화도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얻게 될 시민 고객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 1월 개최한 서울메트로폴리탄 글로벌 포럼을 통해 기 소르망 등 세계적 석학의 제안과 서울문화포럼, 시정개발연구원 등 전문가의 의견, 문화예술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문화시정추진단을 구성해 약 55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완성된 열정의 산물이다.

(서울특별시, 담당: 문화국 문화정책과 김선수(2171-2561) | 등록일: 2008.04.15)

[부산광역시] 해외크루즈 유치마케팅 강화

- 크루즈 입항 시 민속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로 품격 있는 「환영·환송행사」 개최
- 선사·전문여행사·전문 언론인 대상 FAM TOUR 실시
- 세계 3대 크루즈 선사(RCI, Carnival, Star cruise사 등)를 포함 크루즈 본사 대상 유치활동 및 Port Sales 활동 전개
- 올해 호화유람선 랩소디호 입항(4.16)을 비롯해 30여척의 유람선 입항 예정

부산시는 4월 16일(수) 입항하는 초호화 크루즈 ‘랩소디’호 입항과 관련하여 부산을 찾는 외국인에게 부산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보다 많은 해외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항 일정에 따라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포함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품격 있는 환영·환송 행사를 마련해 본격적인 크루즈 유치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동삼동 국제크루즈 전용시설의 개장과 때를 맞춰 서구 선사들이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올해를 기점으로 해외크루즈의 지속적인 입항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세계 최대 크루즈선사인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RCI)사의 랩소디호 부산 유치로 3대 글로벌 경쟁 선사인 Carnival, Star Cruises사의 조기 부산진입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하고 입항하는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마련하는 동시에 크루즈 선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부산 기항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크루즈 입항 시 행정부시장 등 시 간부가 직접 참석해 민속공연을 포함해 선장과 승객대표에게 화환을 전달하고, 관광객 전원에게 부산을 상징하는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환영·환송을 개최하는 동시에 체류기간에 맞춰 문화회관에서 각종 공연을 열어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기로 했다.

또한 선사·전문여행사·전문 언론인을 대상으로 FAM TOUR를 실시하고 세계 3대 크루즈 선사(RCI, Carnival, Star cruise사 등) 및 일본 크루즈 본사를 대상으로 Port Sales 활동을 전개해 본격적인 크루즈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불꽃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바다축제 등 5개 관광축제와 「2층 시티투어」, 전통 민속공연 일정·내용, 문화체험 프로그램(태권도, 도자기, 다도 등), UN공원 등 유적지와 축제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 기간에 맞춰 크루즈가 입항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및 편의 제공을 위해서도 관광안내, 교통, 화장실, 기념품,

숙박, 음식점 등 6개 분야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무료셔틀버스 운행, 부두 내 편의시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부산에는 부산을 준 모항으로 처음 부산을 정기운항하는 랩소디 호(8만 톤급, 최대 탑승객 2,435명)를 비롯해 30회 이상의 크루즈가 입항할 것으로 예상돼 4월 2일 취항한 남해안 크루즈와 더불어 본격적인 해양크루즈 관광산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광역시, 담당: 관광진흥과 김연현(888-3513) | 등록일: 2008.04.11)

[부산광역시] 한류스타 송승헌 부산에서 팬 미팅, 일본 관광객 유치로 부산 관광수지 개선기대

‘송승헌’, ‘동방신기’, 가수 ‘비’ 등 내노라 하는 한류스타들을 부산으로 초청, 체류형 여행상품 판매를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에 부산시와 부산롯데호텔면세점이 발 벗고 나기서로 해 부산 관광업계가 활기를 띄게 됐다.

부산롯데호텔면세점이 주최하고 부산시가 후원하는 한류스타 팬 미팅 행사는 지난 3월 29일 한류스타의 간판스타라 할 수 있는 텔런트 박용하 팬 사인회를 시작으로 내일(4.19) 송승헌을 비롯해 가수 신성우(5월), 김정훈(6월) 등이 차례로 부산을 방문해, 팬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내일(4.19) 오후 3시부터 9시 30분까지 열리는 송승헌 팬 미팅행사에는 만찬, 팬 사인회, 상품 경매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며, 동경,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팬들을 겨냥한 2박 3일간의 체류형 패키지 여행상품 판매로, 1,350여명에 이르는 일본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게 되었다.

부산시는 앞으로 이러한 한류스타 팬 미팅행사를 통하여 관광도시 부산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보다 많은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후원활동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하반기 중에도 가수 비의 콘서트(11월)를 비롯하여 그룹 신화의 멤버인 전진, 이민우(9월), 동방신기(12월) 등 대형 한류스타들의 팬 미팅 행사를 기획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함으로써, 더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팬 미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허남식 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담당: 관광진흥과 김귀옥(888-3504) | 등록일: 2008.04.18)

[대전광역시] "역사학습의 장" 선사박물관 개관 1주년 맞아

— 개관 이후 현재까지 6만 6천여 명 박물관 찾아 —

대전의 선사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은동 유적지에 건립된 대전선사박물관이 지난 3.29로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2007년 3월 개관식과 함께 시민들을 맞이하기 시작한 선사박물관은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재현한 디오라마와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고, 직접 발굴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발굴체험장 등을 무료로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1년 동안 모두 66천여 명의 관람객이 선사박물관을 다녀갔는데, 휴관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환산하면 하루평균 220명이 박물관을 찾은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개관 초기보다 방문객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단체관람과 주말을 이용한 가족단위 관람으로 월 평균 4,000명 정도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개관 이후 선사박물관은 소장유물 확충을 위해 문화재에 대한 수증 활동 및 정리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는데, 연안이씨 이시방가 유물 및 영정 233건 324점, 은진송씨 동춘당가 서화 및 민속류 760건 2,934점, 안동권씨 동정공파 유물 47건 48점 등 모두 1,062건 3,427점을 기증·기탁받아 지금도 정리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기탁된 유물 중에 보물 제1482호(이시방 영정)와 시유형문화재 제21호, 제22호(안동권씨 상세집략, 용천련고) 등이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계와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선사박물관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시 지정문화재 사진전(4.14~6. 1), 용산동 출토유적 특별기획전(4.21~6. 1), 정가(한자이), 승무(송재섭) 등 무형문화재 특별공연(5.18~6.8)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열린 박물관 아카데미, 큐레이터와 함께 하는 문화학교, 전통문화 체험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형극 공연, 주말 영화극장 등 다양한 교육·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사문화를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과 학생들의 체험, 가족활동 증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특히, 동산 문화재의 지역 외 유출방지를 위해 기증·기탁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특별전을 통하여 이들 문화재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등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면서, 현장 학습의 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전광역시, 담당: 대전선사박물관 송민섭(826-2814) | 등록일: 2008.04.14)

[대전광역시] 찾아가는 맞춤형공연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 기업체·연구소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

대전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여 18년째를 맞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다시 한번 그 대상을 업그레이드 한다.

시는 1990년 보육원, 양로원, 교도소 등 시설을 대상으로 연간 15차례 정도 찾아가는 공연을 펼침으로써 찾아가는 공연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불우한 시설수용자들에게는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는 매개 역할을 해 왔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0년도에는 공연 횟수가 연 100회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공연대상도 복지시설 위주에서 학교, 도서관, 병원, 유치원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특히 민선4기 들어 공연이 대폭 확대되어 2006년 240회, 2007년 291회에 이어 금년에는 300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 300회라면 일주일에 6일은 거의 매일 찾아가는 공연이 열리는 것으로 열정과 노력이 깃든 사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체나 연구소, 작은 동네 단위로 공연대상을 넓혀가고 있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공연도 확대하여 환경미화원, 집배원 등 특수직 종사

자와 독립유공자, 군경가족 등에 대해서도 초청공연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다.

시는 기업체 및 연구소에 대한 찾아가는 공연을 위해 4월초 3·4산업단지 관리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으며, 이번 주에는 1·2산업단지 관리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러 지방기업들로부터 찾아가는 공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3·4산단 설명회에서는 특정기업이 사내에 소규모 공연장을 건립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연말에는 산업단지 연합으로 초청공연을 희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100인 이상 고용 56개 기업체와 정부·민간출연 연구소 46개소 등 102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신청을 계속해서 받는다”며, “찾아가는 공연이 근로자와 연구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달 17일 점심시간, 찾아가는 공연이 열린 법원청사에서 많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시립무용단이 법원과 검찰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신명나는 춤판을 펼쳐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원청사를 문화공간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찾아가는 공연은 이제 우리생활 주위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빈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광역시, 담당: 문화예술과 이영근(600-3362) | 등록일: 2008.04.14)

[인천광역시] 관광호텔 위생관리 지도·점검 실시

인천광역시는 2009 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주된 이용시설인 관광호텔에서의 위생서비스 향상 및 집단식중독 등 식품 유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광호텔 내 위생관련 부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4.16부터 5.2일까지 실시키로 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하여 식품의 위생적 취급 및 부패, 변질 및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여부와 이·미용업소에서의 면허에 관한 규정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위생안전기동 T·F』 팀이 주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금번 위생점검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위생서비스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북아의 관문 도시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국제명품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에 더욱더 매진하기로 하였다.

(인천광역시, 위생정책과(440-2772) | 등록일: 2008.04.15)

[울산광역시] 부·울·경 발전협의회 8년의 성과

‘가장 모범적인 광역단위 협의회로 자리 잡아’

지난 4월 11일 『화합과 상생의 여덟 번째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8차 부·울·경 발전협의회’가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3개 시·도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광역자치단체라는 공동 인식 하에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남권의 공동 번영과 광역 현안과제의 효율적인 해

결을 위해 지난 2000년 6월에 부·울·경 발전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의 성공사례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이후 합의되어 추진 중인 19건의 공동합의 사항들에 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개설 등 굵직굵직한 울산의 대형사업들이 망라되어 있다.

열악한 지역 항공인프라의 획기적 전기가 될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부·울·경 3개 시·도의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등 노력에 힘입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3월 『제2관문공항(남부권) 건설여건 검토 연구용역』을 시행, 건설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지난 2006년 8월 제5차 협의회에서 울산, 부산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공동의제로 선정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역시 동남권의 주요한 과제로 추진 중이다.

비수도권 유일의 광역전철로 지정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광역전철 지정해제시 5,360억원의 지방비(부산 3,363, 울산 1,997)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3개 시·도 공동명의로 정부 및 국회에 지속 건의중이다.

울산~함양간 고속국도 건설사업도 울산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다. 총사업비 5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울산~함양간 고속국도가 개통되면 울산의 광역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울산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는 경부고속국도가 유일한 실정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매우 심한 실정이나, 울산~함양간 고속국도의 개통시 서부 내륙권의 접근성이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울산의 미래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전철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07.3월 제7차 협의회에서는 울산~양산간 광역경전철망 구축에도 3개 시·도가 합의하였다. 총 1조원이 소요되는 동 사업은 현재 국토해양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코자 3개 시·도가 공조,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사업들 역시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사무소 공동 이용과 해외시장개척단 공동 파견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동남권 순회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2008년도 울산 개최 예정)를 통해 지역 구직자와 참여기업 모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으며, 울산 정밀화학지원센터 공동이용에 합의하여 시설물 이용을 제고를 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담당: 기획관실 류재균(229-2151) | 등록일: 2008.04.15)

[광주광역시]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일제점검

- 14~17일, 금호패밀리랜드 등 유원시설 6곳 -

봄 행락철을 맞아 '2008년 상반기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광주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시내 유원시설 6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치기준 적합여부 △놀이기구 안전성검사 수검여

부 및 안전관리자 상시배치 등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놀이기구·설비의 결합 및 제반 시설의 안전성 유무 △영업배상 보험가입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경미한 결함이나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결함 등의 부적합 기구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놀이기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자와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내에는 지난 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휴업중인 무등산랜드를 제외한 금호패밀리랜드, 해피랜드, 무등산리프트, 금호패밀리수상레저, 송산유원지, 송산레저 등 6개의 유원시설이 있다.

(광주광역시, 방재관리과(613-8234) | 등록일: 2008.04.10)

[광주광역시] 중국·일본 관광객 유치 위한 팸투어 실시

- 9일 일본 후쿠시마TV 취재지원 -

- 13일 중국 상해 여행사관계자 등 관광코스 답사 -

광주시에 일본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했다.

시는 '2008 광주·전남방문의 해'를 맞아 7일부터 13일까지 광주 관광 홍보와 관광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일본과 중국의 언론사 및 여행사 관계자에 대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후쿠시마TV에 대한 광주관광 취재를 지원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는 광주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상해지역 여행사와 언론사, 항공사 관계자 등 14명을 초청해 관광코스를 답사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광주권 지역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그리고 풍부한 음식 등을 집중 소개해 일본과 중국 현지인에게 광주를 한국의 새로운 맛과 멋이 넘치는 관광지로 부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상해지역 여행사 판매담당자에게 광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광상품에 대한 현지답사와 해설 등을 통해 상품판매에 직접 도움을 주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시는 7일부터 사흘간 일본 후쿠시마지역 최대 방송매체인 후쿠시마TV에 DJ센터와 국립 5·18민주묘지, 시립민속박물관, 비엔날레 상설홍보관, 충장로 등을 자전거로 드라이브하는 상품을 소개했다. 후쿠시마TV는 향토음식박물관, 예술의 거리 등에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취재해 일본 현지에서 특집프로그램으로 방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상해지역의 광주관광상품 판매여행사인 상해양자국제, 상해중국국제, 상해중여국제 등 판매 담당 책임자와 여행전문 언론사인 신강북무도보, 상해신문도보, 아시안항공과 동방항공 단체판매 담당자 등은 정율성생가, 충장로, 화순운주사, 낙안읍성, 보성다원 등을 답사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상해지역에서 판매되는 광주공항 이용 상품과 제주지역 연계상품의 판매촉진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가속도가 붙고, 일본인의 관광패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일본 관광시장에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올림픽 이후 중국의 관광시장 개방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스토리와 남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심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으로 출생한 '단카이 세대1)'를 겨냥한 휴양관광, 농산업 비교체험관광 이용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품격 음식과 전통문화 등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관광과(613-3630) | 등록일: 2008.04.13)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 유치·지원 전략회의 개최

원주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지원단은 유치위원장인 김대기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김상표 도 산업경제국장, 구영모 원주부시장, 김정도 원주시 경제환경국장, 한승호 강원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장 등 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6일 원주첨단의료기기벤처센터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원주 유치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정부가 국내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의료산업 허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0년간 총 5조6천억 원을 투입, 8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창출 등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원주는 물론 전국 10여 곳의 지자체가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지역은 원주를 비롯하여 인천 송도바이오메디컬허브, 대전 대덕테크노벨리,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경북·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 포항테크노파크,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첨단의료복합단지, 제주헬스케어타운, 광주첨단의료복합단지, 경기 광교테크노벨리, 서울생명산업복합단지 등이다. 특히, 지난 3월 28일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후속입법을 상반기 중으로 마치고, 연말까지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어서 유치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유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년 하반기에 있을 입지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유치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유치경쟁에 뛰어든 여러 지자체들의 최근 유치활동 상황과 유치전략, 경쟁 도시 간 경쟁력 분석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도 논의하게 된다. 도와 원주시에서는 향후 입지선정 평가에 대비하여 사업계획과 입지선정 요건 중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집중 보완하는 등 유치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지식산업과(033-249-3472) | 등록일: 2008.04.16)

[경기도] 경기국제보트쇼 및 국제도자페어 등 道 주관 축제 전방위 홍보 나서

지난 3월 13일 “공익분야 상호협조 협약”을 체결한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가 경기도 관광 및 축제 홍보에 힘을 합쳤다.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는 4.11(금)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경기도 관광 및 축제 홍보물과 꽃씨 등을 배포하며, 경기도의 관광 및 축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조기에 높이기 위한 『경기관광 포커스 데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1) 단카이 세대는 일본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1949년 사이에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표철수 정무부지사, 한국도로공사 백석봉 사장 대행, 그리고 4.25~5.5 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경기도 국제도자페어』를 개최하는 권두현 (재)세계도자기엑스포 대표이사 등 각 기관의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 홍보기획관에 의하면, 『경기도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해양 레저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 확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금년 6.11~6.15까지 “경기 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바, 다소 생소한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사 기간 중에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매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6월에는 서해안에서 다양하고 이채로운 이벤트를 즐기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향후 저소득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체들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도, 홍보기획관실 | 등록일: 2008.04.14)

[경기도] 경기국제보트쇼 경기정 공개 및 성공기원제 실시

- 4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성황리에 개최 -

최근 정부가 해양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국제적 규모의 보트쇼를 개최하면서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는 자동차산업의 모터쇼와 F1 그랑프리대회에 비견되는 해양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두 행사인 보트쇼와 WMRT (World Match Racing Tour)를 동시에 국내에 유치하여 오는 6월 11일부터 화성시 전곡항에서 두 개의 행사를 동시에 개최한다.

세계적 요트제작 업체들과 상위 입상자(Ranker)들이 대거 참가할 이번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기 위하여 도는 4월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최영근 화성시장, 전재영 화성시의회의장, 정창섭 행정안전부차관보, 압둘라 알마이나 아랍에미리트대사, 팀 코벤트리 BMF (영국해양협회)부회장, 이종수 현대건설 대표, 양태홍 경기도의회 의장 등 경기G마린 페스티벌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공식 경기정(競技艇)을 공개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다.

오늘 공개된 경기정은 요트산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제작한 최초의 공식 승인 경주용 배로써 뉴질랜드의 세계적 요트 디자이너 브렛 베켈 화이트가 디자인하고 뉴질랜드 아메리카스컵 팀의 기술협력을 받아 화성시에 있는 국내업체가 제작하였다.

이날 김문수 경기지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대륙을 향해, 바다를 향해, 미래를 향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상징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조된 세계대회 공인 요트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번에 개최되는 보트쇼와 요트대회가 대한민국이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상징으로 국익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개월 동안 경기 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럽과 호주, 미국 등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4월 8일 현재 88개의 해외업체를 유치했고 참가 가능성이 높은 업체도 90개에 이르고 있어 47년 역

사를 가진 일본 국제보트쇼(요코하마)의 규모를 넘어서 두바이 보트쇼, 상하이 보트쇼에 이은 아시아 세 번째 규모가 될 전망이다, 그 중에는 Sunseeker (영국), Princess (영국), Beneteau (프랑스), Bavaria (독일), Azimut (이탈리아), Ferretti (이탈리아) 등 세계적인 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경기 국제보트쇼가 첫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보트쇼로 손색없는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문의: 해양수산과(249-2670) | 등록일: 2008.04.14)

[경기도] 『덕포진 관광지』 지정 승인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 107번지 일원의 덕포진 주변지역 265,540㎡를 「덕포진 관광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번에 경기도의 15번째 관광지로 지정된 「덕포진 관광지」는 조선시대 서해로부터 강화만을 거쳐 서울로 통하는 바닷길의 전략적 요충지대였던 곳으로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의 격전을 치른 역사 유적지(사적 제292호)이기도 하며, 그 동안 역사 및 문화체험 관광지로서의 종합개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온 지역이었다.

경기도는 「덕포진 관광지」를 조성계획 수립을 통해 2010년까지 사업비 1,20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게 되며, 역사문화 체험장, 박물관, 전시장, 한방 SPA, 펜션 빌리지, 가족휴양촌, 전망대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의 대명항 합상공원, 조선시대 왕릉묘역인 장능, 최근 안보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애기봉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성하여 수도권내 새로운 관광거점지역으로 성장시킬 계획된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관광지 개발의 양적 확충과 질적 다양화를 통해 낙후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도 관광지가 수도권 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 동북아 관광시장의 허브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대표 브랜드와 연계된 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문의: 관광문화산업과(249-4730) | 등록일: 2008.04.15)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해외문화유적 탐방 나서

충청남도는 문화관광해설사 40명을 선발, 오늘부터 30일까지 1:2차로 나누어 5박 6일 동안 중국에 있는 '고구려 문화유적'과 '중국의 청나라 고궁' 등 해외 문화유적 탐방길에 나섰다.

이번 중국문화유적 탐방은 우리 선조들의 우수한 해외 문화유적지를 둘러보고 문화관광해설사 상호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문화해설 능력'의 동반상승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중국 도문에 있는 '윤동주 서시 비문' 탐방을 시작으로 광개토태왕비를 비롯한 장군총, 환도산성, 국내성 등 고구려 문화유적과 심양에 있는 청나라 고궁 등 淸朝문화를 탐방하게 된다.

문화관광해설사란 도내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한 인식제고와 외국관광객 증대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해 해외탐방을 실시한 결과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사기진작과 관광객들의 해설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에 힘입어 금년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도내 주요 문화관광자원을 알리

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40명을 선발, 확대 실시하게 되었는데, 해외 문화유적지의 인프라시설 체험을 통해 좋은 경험과 함께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매년 이런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道 관계자는 “이번 탐방으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한 차원 높은 해설능력 배양으로 다시 찾고 싶은 충남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충청남도, 문의: 관광진흥과 박태진(042-251-2361) | 등록일: 2008.04.16)

[충청북도] 도 대표단 중국 길림성 방문, 청주-장춘 공항과 항로개설 등 합의

중국 길림성을 방문중인 충청북도 대표단은 4월 15일 길림성과 양 지역 공항간 항로개설 사업을 본격 협의했다.

정우택 지사는 길림성의 왕민 당서기를 예방한 자리에서 오는 9월 개항될 길림성의 백두산 공항과 청주공항간 직항로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한편,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은 길림성 여유국장과 항로개설에 관한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빠른 시일내 청주↔장춘 공항간 항공 노선을 열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국의 장춘공항은 백두산 관광의 관문공항으로서 연중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청주공항과 직항로가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오창산업단지와 장춘첨단기술개발구간 교류협약을 체결하였다.

장춘첨단기술개발구는 중국 10대 개발구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금호타이어, 독일의 폭스바겐을 비롯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다.

양 산업단지 간의 교류협약을 통해 산하 기업인간 교류, 각종 정보교류, 투자유치를 위한 상호협력 등 다양하고 실익있는 경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양 산업단지의 공동 번영과 나아가 충청북도·길림성간의 경제분야 교류의 주춧돌 역할을 실행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 등록일: 2008.04.18)

[경상남도] 외국인투자기업 CEO 초청 '남해안시대 글로벌 마케팅'

-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민자유치 및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

경남도는 4월 18일(금) 11시 서울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에서 주한 외교사절단, 미 주정부대표, 외국인투자기업 CEO를 초청하여, 김태호 지사의 역점사업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글로벌 마케팅을 하였다.

이날 행사는 남해안 대규모 민자유치사업과 경남도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맞춤형 투자설명회로 이루어졌으며, 작년말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최초의 입법사례」인 「동서남해안발전 특별법」이 통과된 후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세계적 마케팅전략」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싱가포르대사관을 비롯한 39개 주한 외교상무관, 미국 앨라바마주정부 등 2개 주정부대표, 제트로 등 외국인투자기업 CEO 및 주한캐나다상공회의소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들 모두가 잠재투자가 및 자국내 투자정보제공자로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경남도의 투자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오늘 소개된 주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는 고성군 동해면 당항만 종합관광 개발사업(10,600억원), 마산시 구산 해양관광단지 조성(3,450억원), 진해 명동 해양관광단지 개발(2,229억원) 등이다.

이날 경남도 이창희 정무부지사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글로벌 마케팅은 김태호 도지사의 전략적 리더십에서 출발하였으며, 앞으로도 남해안권역이 수도권역에 대비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대된 아랍에미레이즈 대사(H.E. Abdulla M. Almaainah)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한국의 새로운 미래 비전으로 떠오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행사로 남해안권의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남해안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해양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발굴하고, 한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투자기업 단체인 AMCHAM, EUCCK, JAPAN CLUB, ASOK 등과 지속적인 투자정보 교류를 통해 증액투자를 유도함은 물론, 한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외국기업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투자설명회를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국·내외 테마형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신정부 출범과 함께 투자유치 실적 2배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무형 투자설명회를 올 한해 3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4월 24일 창원호텔에서 경남도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사천 외국인 임대전용단지가 있으며, 분양가 차액보조, 시설 및 고용보조금, 현금지원제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타시도와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부지매입비 50% 무이자 융자지원제도 및 국내기업투자촉진지역제도는 국내기업역차별을 보정하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담당: 투자유치팀 류명현(211-3472) | 등록일: 2008.04.17)

[전라남도] 남도 향기 가득한 여름 관광상품 찾아주세요

- 전남도, 23일까지 황포돛배·토요경매 등 활용 여행상품 공모 -

전라남도가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황포돛배, 전남도립 국악단 토요공연, 남도예술은행토요경매 등 남도의 향기가 가득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여름철 특별 여행상품 공모에 나섰다.

전남도는 오는 23일까지 전국 모든 여행사를 대상으로 여름철 남도 특별 관광상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도문화상품으로 영산강 유역의 다야들에서 중천포까지 뱃길 체험을 할 수 있는 황포돛배와, 매주 토요일 오후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퓨전국악을 흥겹게 관람할 수 있는 도립국악단 토요공연, 진도 운림산방에서 이 지역 출신 예술인들의 뛰어난 예술작품을 경매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남도예술은행토요경매 등 3개의 상품을 중심으로 공모한다. 또 여름철 전남 관광의 백미인 홍도·거문도와 같은 섬, 하트해변으로 유명한 신안 하누섬해수욕장, 갯벌에서의

즐거워 한 때를 보낼 수 있는 중도의 섬·갯벌 올림픽 축제 등 올 여름 한 번쯤 방문하면 좋은 추억거리가 될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름상품도 포함된다.

황포돛배 상품은 전남에서 주중 1박, 토요일공연과 토요일경매는 2박, 여름상품은 1박 이상으로 구성된 상품을 공모하며, 오는 23일까지 우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남도 문화상품은 각각 1개씩 3개, 여름상품은 20개를 선정 운영한다.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남도 문화상품의 경우 버스임차료 1일 1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여름상품은 상품홍보비 100만원과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시상금을 차등 지원하며 광주시와 전남도에 서 운영하는 관광포털사이트 및 홍보물 등에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명창환 전남도 관광진흥과장은 “남도문화상품은 전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상품으로서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품별로 호응이 좋을 경우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과(286-5230) | 등록일: 2008.04.16)

[전라남도] 전남서 국제스포츠산업포럼·요트세미나 등 개최

- 전남도, 10월 전국체전 앞두고 스포츠마케팅 총력 -

전라남도가 오는 5월 국제스포츠산업포럼을 비롯 국제 요트세미나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는 16일 올해 광주·전남 방문의 해와 개도 이래 처음 개최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국내·외 스포츠·레저대회 및 포럼을 유치해 많은 스포츠방문객이 남도의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우선 5월 말 학계·업계·언론인·정책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스포츠산업 포럼을 개최한다. 이어 7월과 8월에는 러시아요트연맹 전문가를 초빙해 요트산업 소개와 항해(Sailing)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요트 세미나를 갖고 9월에는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엘리트체육과 스포츠클럽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전국스포츠학회를 개최한다.

또 6월과 8월에는 지역 축제와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연계한 연예인 축구팀을 초청해 친선경기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를 2회에 걸쳐 개최,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7월에는 비교우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7개국 참가 국제모터보트 그랑프리 대회를 개최해 레저스포츠 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한편 천혜의 청정해안, 파도, 갯벌 등 양질의 해양관광자원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남해안 개발과 J프로젝트 등 국책사업과 연계한 도내 골프장 공급확대에 따른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전남 골프장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 유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시군, 골프업체, 교수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골프레저 관계자 Community를 주기적(분기 1회)으로 운영해 관광문화와 테마별 골프패키지 상품개발, 해외골프여행객 유입 등 수도권 골퍼 유치 방안 강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한해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각종 전국규모 국내대회 34개 3

만4천명(연인원 17만 명), 국제대회(청소년월드컵 등) 4개 1만1천명(연인원 5만5천명), 생활체육 및 레저스포츠대회 20개 2만8천명(연인원 14만 명), 동계전지훈련 860개 팀 2만 명(연인원 27만9천명)을 유치해 직접효과 380억원, 간접(생산유발)효과 652억원의 성과를 올리는 등 스포츠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전남 강진군에서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펼쳐졌다. 이 대회는 여자축구 초·중·고·대학·일반 등 전 종별 60개 팀 1330여명의 선수단과 학부모 등 800여명이 참가해 장흥, 해남 등 인접지역 등에서도 숙박을 하는 등 지역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장태기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이번 국내외 레저·스포츠대회 및 포럼 개최를 통해 일반관광객보다 지역경제 소득 창출 효과가 큰 스포츠방문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아시아권 스포츠대회 유치 및 스포츠 관련 지명도 있는 레저 관심도를 대내외로 알려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와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286-5530) | 등록일: 2008.04.16)

[전라남도] 골프장 과잉공급시대 공격적 마케팅으로 극복한다

- 전남도, 지역 유명 프로골퍼 초청 대회 유치 등 전략 논의 -

전라남도가 지역 소재 골프장 이용객 전국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골프장 공급 과잉시대를 앞두고 수도권 골프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출신 유명 프로골퍼를 초청한 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18일 오후 도청에서 도내에 운영·공사중인 골프장업체 임원, 식음료·특산품업체 대표, 전문교수, 관계공무원 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업계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전남골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골프·레저산업 육성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간담회는 머잖아 전국 400개 이상의 골프장 공급과잉으로 예상되는 경영수지 적자 가능성에 위기의식을 갖고, 골프수요가 넘치는 수도권 골퍼들의 유인책을 최대과제로 진단, 이를 위해 남도의 특색 있는 여건을 적극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골프관광 메카로 우뚝 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전국 초·중·고·대학생 골프대회, 시니어 골프대회, 최경주·신지애 등 전남출신 유명프로 초청 골프대회, KPGA·KLPGA대회 등 전국규모 이상의 이벤트 골프대회를 적극 유치하자”고 입을 모았다.

또 국내 여행사와 골프장 업체간 협약으로 관광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골프패키지 상품 개발 및 평일·비수기 이용객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중국, 일본 등 동남아 골퍼여행객 유치 ▲따뜻한 기후조건,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사용료 등 집중홍보 ▲주민의 환경오염 점검 자동시설 설치, 배수구 및 폰드에 전통어종 입식, 한옥 건축물 건립 등 웰빙·친환경골프장 설치 ▲전남지역 생산 식음료 및 농수축산물 이용·판매 권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최근 전남골프장이 겨울철 온화한 기후와

빠어난 주변 경관 때문에 연중 이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홀당 5089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라며 "행정기관, 골프장업체 등 관계자들이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면 1천홀시대 전남골프의 전망은 밝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수도권 골퍼들이 전남지역을 많이 찾을수록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지역 농수산물도 사가고 지역에 대한 온화한 이미지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개선·건의사항은 도에서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286-5530) | 등록일: 2008.04.18)

[제주특별자치도]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관광자원 발굴

- 사랑, 등대, 아름다운 길 -

제주 관광지는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 속에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다.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이나, 로렐라이 언덕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이색적인 풍경이나 독특한 볼거리는 없는데 연인의 슬프고 사연깊은 사랑이야기로 관광상품화 하여 세계 각국의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어 그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마케팅 전략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는 관광뿐만 아니라 체험·느끼는 관광에도 초점을 맞추어, 제주의 구석구석에 애절한 사랑이야기,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고독을 즐겨 줄 등대, 연인과 함께 걸어도 좋을 길 등을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하였다.

새롭게 발굴된 관광자원을 보면, 첫 번째 『사랑』이라는 테마에 어울리는 서귀포예래동의 갯각동굴, 온평리 바닷가와 혼인지, 동미리과 서미리, 우도의 서빈백사, 벚꽃잎 눈물날리는 홍량로, 절부암 등을 소개하고 있다.

두 번째 『등대』라는 테마는 눈부신 제주바다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바다사람들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산지등대, 우도등대, 마라도등대, 민간등대인 도대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길』 테마는 아름다움·슬픔·각각의 사연을 안고 그 자리에 있는 제주의 길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제주의 아름다움을 관광자원화 하였다.

사랑, 등대, 길 3종의 테마를 소재로 하는 관광자원화는 최근 트렌드에 맞는 웰빙형 감성 테마관광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자원담당(710-3322) | 등록일: 2008.04.11)

[제주특별자치도] 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체결시행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대비한 잠재관광시장 및 목표시장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학·연 공동연구체제 구축 및 조사자료의 지속적 Date Base화를 위하여 도내 최고의 대학교인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관광시장용역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 등 관광전문교수와 도내 대형여행사대표자들이 공동 참여하여 금년도에 종합적인 시장조사를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관광관련 정보를 Date Base화 하기로 했다.

조사대상국가는 국내권과 해외권을 구분하고 국내권인 경우, 서울수도권, 부산영남권, 광주호남권, 충청강원권 및 북한권(백두산, 개성관광)을 중점으로 하되 관광시장의 제반변동요인과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외권인 경우, 제주와 국제직항 또는 크루스노선이 설정된 일본, 중국, 대만 주요전략도시와 향후 잠재적 관광수요가 예상되는 동남아시아(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동, 러시아, 인도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국내권은 자치단체의 관광산업육성제도 및 전략, 관광객성향, 북한관광실태 및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 비교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해외권은 국제교통노선 및 확충계획, 주요관광자원, 관광정책 및 육성제도, 관광시장규모 및 환경, 산업동향 및 사회경제적 추이, 인구이동 등 시장변동에 미치는 요소 등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조사용역을 기반으로 Date Base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인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외 관광시장 변동요인을 체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화 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과 관광정책과(710-3321) | 등록일: 2008.04.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공격적인 해외환자유치 활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도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외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상 특례로 허용됨에 따라 건강검진 패키지, 암 조기검진, 치과치료, 해수치료, 재외동포 고향방문 패키지 등 우리 현실에 적합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의료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4월중에 도내 병·의원 및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중에 참여 기관·업체를 공모하여 의료인, 관광인, 전문가, 행정인 등이 참여하는 “제주의료관광상품개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의료관광상품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관광상품에 대하여는 홍보물 제작비, 활동비 등 홍보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우선 제주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주 타겟시장으로 정하고 중국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제주의 높은 의료기술과 천혜의 관광자원, 의료비자혜택(4년)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일본의 웰니스 층을 대상으로 값싼 진료비와 결합한 건강관련 패키지 상품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의료관광전담여행사를 지정하여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리고 각 기관·업체에

서 개발된 관광상품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해외 관련 여행업체 등에 배포하고, 중국과 일본의 관련 여행업체, 언론인 등을 초청하여 관광상품을 직접 체험케 하여 자국 내에서 관광객을 모집·송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 현지에서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제주의료관광설명회도 개최하고 일간지, 의료전문잡지, 관광전문잡지 등에도 광고하여 제주의료관광의 우수성을 알리는 물론 국내외 국제관광관련 박람회, 의료관련박람회 기타 대형행사시에도 홍보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료산업유치지원단 구성·운영, 의료산업투자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우수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선진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국내법인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 광고 규제 완화,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제주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산업팀(710-2445) | 등록일: 2008.04.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서부권에 종합휴양형 블랙나이트리조트 조성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원에 다양한 레저활동이 가능한 종합휴양시설을 갖춘 블랙나이트리조트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블랙나이트리조트(주식회사 해동 대표이사 최은철·양행구)는 지난 해 2월에 개발사업예정자 지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과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7일 사업시행자에게 입안계획을 통보하였다.

또한 이 리조트의 사업부지는 지난 2006.9월부터 금년 6월까지 37,855㎡를 채석장으로 허가받아 운영중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기 개발·훼손된 지역을 재개발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주)해동에서는 세계 수준의 규모·설계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4대 메이저대회를 휩쓴 남아공화국의 골프스타 게리 플레이어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코스 디자인회사 “플레이어 디자인”에서 설계 및 회사의 고유브랜드인 “Black Knight(흑기사)”를 명명하여 블랙나이트리조트라고 하였으며 2012년까지 1,792억원을 투자하여 1,669,820㎡의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승마장·조각공원·스파랜드·수영장·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골프 외에도 다양한 레저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종합휴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블랙나이트리조트가 조성되면 제주 서부지역 관광지(신화역사공원·소인국테마파크·블랙스톤골프장 등)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공람 후 도시관리계획 입안·환경영향평가·개발사업 승인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금년 내 실질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원
- 규모 및 기간: 1,669,820㎡ (505,118평) · 1,792억원, '07~ '12

- 시행자: (주)해동 대표이사 최은철 · 양행구
- 주요시설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시 설 내 용
계	1,669,820	100	체육시설(1,361,014m ²), 관광휴양시설(308,806m ²)
공공편의시설	171,866	10.3	진입로, 저류지, 오수처리시설, 수위실
숙박시설	86,412	5.2	연립형콘도(2동 64실), 단독형콘도(71동 130실)
상가시설	3,918	0.2	휴게음식점, 근린생활시설
운동·오락시설	469,968	28.1	골프장(27홀), 연습그린, 클럽하우스, 관리동, 직원숙소, 직원연수동, 스파랜드, 승마장 등
기타시설	937,656	56.2	원형녹지, 조성녹지

□ 추진상황

- '07. 2.28 개발사업예정자지정
- '07.12.27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접수
- '08. 4. 7 도시관리계획 입안 반영 통보

□ 향후 추진계획

-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주민공람 등 의견 수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통합영향평가 심의·협의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제주특별자치도, 일괄처리팀 일괄처리 3담당(710-3391) | 등록일: 2008.04.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평화센터(밀랍인형전시관), 평화교육·학습체험장으로 관광객에게 인기

제주국제평화센터(밀랍인형전시관)가 지난 3월 6일부터 무료 개방함으로써 인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제주국제평화센터를 찾은 관광객은 7,964명으로, 무료개방 이전인 2월 1,330명 보다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상징 랜드마크 시설인 “제주국제평화센터”는 평화에 대한 홍보 및 전시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구현의 중심적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1년 4월 한·소 정상회담 이후 제주를 방문한 세계정상들과 남북 평화실천 교류활동 모습, 노벨평화상 수상자, 평화와 인류애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 제주를 포함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 및 제주영상을 소재로 세계에 제주의 이미지를 알린 연예인 등 31인을 선정하여

밀랍 인형으로 제작·전시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제주국제평화센터 밀랍인형전시관을 관람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게 된 배경과 과정, 그간 평화 실천사례 등을 최신 장비로 감상 또는 체험해 보고 세계평화에 기여하신 분들의 밀랍인형을 보면서 정교함에 감탄하는 등 새로운 관광지로서 관람객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모든 관람을 끝내는 마지막 시점인 상징홀에 배치된 “365일 코골면서 편안히 잠자고 있는 모습을 재현한 이름 없는 밀랍인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감탄과 웃음보따리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710-6255) | 등록일: 2008.04.14)

[제주특별자치도] 웰컴 투 세계자연유산

2008 세계작물학대회를 위해 제주를 찾은 각국의 참가자들에게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5회 세계작물학대회가 전 세계 100여 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많은 외국인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름다운 제주 방문의 인상을 남기고 청정 제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세계자연유산 홍보를 집중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컨벤션센터 3층 로비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사진전을 개최, 아름다운 비경을 담은 사진 40점을 전시하고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 홍보관에 제주 세계자연유산 리플릿을 배부하는 한편, 외국인 참가자들을 위해 홍보 DVD 500부를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

한편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연간 5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제주를 찾음에 따라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자연유산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특히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 대회 및 국제행사에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집중 홍보해 제주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총괄관리부(710-66575) | 등록일: 2008.04.1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지구, 탐방객 맞이 '변신 중'

세계자연유산본부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만장굴 3개 지구를 대상으로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자연유산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한라산에서는 윗세오름 대피소, 사라악 대피소, 용진각 대피소가 새단장을 하게 된다. 윗세오름 대피소 증개축은 총 사업비 1,550백만 원을 투입, 올 10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사라악 대피소는 총 예산 373백만 원을 들여 속밭 위치로 이전하면서 올 연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된다.

지난해 태풍 나리로 유실된 용진각 대피소는 668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삼각봉 앞에 새로 시설된다. 이와 함께 노후된 영실 진입로·주차장 및 성판악 주차장 포장 공사가 4월 중 착수된다.

성산일출봉에서는 총 예산 429백만 원을 투입하여 성산일출봉 주차장 조성 및 분화구 식생정비, 관람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만장굴은 지난 3월 말 만장굴 내부 관람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만장굴 용암석주까지 이어진 기존의 철제 관람로(총 길이 75m)가 소음이 심하고 부식이 발생함에 따라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강화 플라스틱(FRP)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기존 만장굴 거북바위 주변에 있는 시멘트 관람로 시설이 동굴 환경과 어울리지 않음에 따라서, 무광택 스테인레스 스틸로 교체하였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올해 3개 유산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물 정비를 통해 세계자연유산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뜻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설물 정비 기간 중 충분한 안내를 통해 관람객들의 양해를 구하는 한편, 관람객과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하는 등 탐방객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총괄관리부(710-66575) | 등록일: 2008.04.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향토문화체험장 오픈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역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예공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제주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향토문화체험장이 조성되어 4월 18일(금, 13:00) 첫 문을 열게 된다.

한림읍 금능리에 위치한 제주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그리고 향토문화체험장은 지난해 10월 발주하여 총사업비 450,000천원(보조금 300,000천원, 자부담 150,000천원)을 투입, 8개월만에 빛을 발하게 되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공예협동조합 회원으로 구성된 제주관광공예개발주식회사(대표 전외옥)에서 앞으로 연중 운영하게 된다. 특히 향토문화체험장은 2008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2008 전통문화·인성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도내 학생들의 체험장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전시되는 주요작품들은 2001년~2007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품 공모대전에 입상된 작품으로 제주의 민속인형, 금속 및 제주석을 이용한 실내조명용품, 돌섬 등 90여 작품이 다양하게 전시되며 공예조합회원들이 만든 돌하르방 석제캐릭터, 제주옹기제품류, 제주자연석을 이용한 조각 및 갈소품 등 200여점은 판매도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다양한 공예품을 볼 수 있고, 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예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공예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등록일: 2008.04.18)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회의 개최 최적지로 입증된 제주

- 2007년도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 결과 국내 최고 입증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2007년도 국제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제회의

시설수준과 운영수준 및 회의 참가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에서 명실상부한 국제회의 개최 최적지로 입증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난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전국에서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4개 도시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중 UIA(국제협회연합) 기준에 적합한 25건(제주 5건)의 국제회의에 대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제회의 시설수준과 운영수준 및 참가자 만족도 등 4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29개 항목 중 28개 항목은 제주가 최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항목을 집계하여 평균으로 환산 분석한 결과도 5점 만점 기준으로 ①제주 4.27 ②대구 4.07 ③서울 4.02 ④부산 3.57순으로서 제주가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국제회의시설 및 서비스 평가 부분에 있어 국제회의 시설수준은 5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제주는 평균 4.57점으로 조사대상자의 92.7%가 우수하다고 평가함으로써 회의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회의 운영수준은 8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평균 4.20점으로 72.5%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운영요원의 서비스가 92.5%로 최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외국어서비스에 있어서는 54.6%로 다른 도시보다는 우수하나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의관련 특별이벤트 분야는 6개 항목에 평균 4.24점으로 68.9%가 우수하다고 하였으며 개막식행사와 사교행사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동반자 프로그램은 33.9%만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므로써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참가자의 제반활동에 대한 만족도 부분 10개 항목에 대하여는 평균 4.20점에 81.0%가 우수하다고 평가하여 회의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만족해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특히 숙박과 국제회의 개최지로서의 매력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쇼핑에 있어서는 56.4%가 우수하다고 평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지역 회의참가자들이 인상 깊었던 점은 사람들의 친절성(28%), 자연경관의 아름다움(21%), 독창적인 문화유산 (16%)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의참가에 따른 장애요인(복수응답)으로는 언어소통(74%), 고물가(36%), 표지판 이해불가(22%), 음식의 맛(1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가 국내 어느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국제회의 유치에 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국제회의 유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국제회의 시설수준에 대한 항목별 평가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외 컨벤션 참가 및 국제회의기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로 국제회의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 다른 도시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상대적으로 평가가 저조하게 나타난 외국어서비스, 장애인시설 및 서비스, 회의참가자 관광 및 동반자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PCO 및 컨벤션 업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앞으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는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회의참가자들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난 언어, 물가, 안내체계 정비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국제회의의 유치를 위한 경쟁력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2007 국제회의 참가자 실태조사〉

□ 조사기간: 2007년 3월~11월 (7개월)

□ 조사대상: UIA(국제협회연합) 기준 국제회의 25건

- 제주도 5건, 서울시 14건, 부산시 3건, 대구시 3건
 - 제주특별자치도 조사대상 국제회의: 5건
- ASTA총회 (3.25~3.29), 제16차 로봇-인간 상호교류 IEEE 국제심포지엄 (8.26~8.29), 제11차 아시아태평양 성기능 국제학술회의 (9.30~10.4), 제25차 아시아광고대회 (10.21~10.24), UCLG 세계총회 (10.28~10.31)

□ 조사방법: 국제회의 개최 현장 설문조사

- 컨벤션전공 대학원생 활용

□ 조사내용

- 국제회의 참가자의 여행성향
- 국제회의시설 및 서비스 평가
- 국제회의 참가 영향력, 만족도 및 재방문 의사
- 국제회의 참가자 소비실태

□ 조사기관: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학회, 경희대학교에서 조사 수행

〈개최도시별 참가자 실태조사 결과〉

□ 총괄: 4개 분야 29항목

분 야	평 가 항목수	평 점	개 최 도 시 별			
			제 주	서 울	부 산	대 구
평 균	29항목	4.03 (69.3%)	4.27 (78.2%)	4.02 (69.6%)	3.57 (51.2%)	4.07 (70.9%)
국제회의시설수준	5항목	4.33 (84.4%)	4.57 (92.7%)	4.36 (85.9%)	3.89 (69.3%)	4.24 (79.6%)
국제회의운영수준	8항목	3.95 (65.5%)	4.20 (72.5%)	3.96 (66.8%)	3.38 (42.9%)	4.09 (71.2%)
회의관련특별이벤트	6항목	3.95 (55.4%)	4.24 (68.9%)	3.89 (54.1%)	3.45 (35.9%)	3.96 (57.2%)
참가자만족도	10항목	3.99 (73.0%)	4.20 (81.0%)	3.97 (73.0%)	3.64 (58.1%)	4.04 (74.5%)

※ 평점은 5점 만점이며, ()안의 %는 항목별 우수로 평가한 비율임

□ 국제회의시설 및 서비스 평가: 3개 분야 19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평 점	개 최 도 시 별			
			제 주	서 울	부 산	대 구
국제회의 시설수준 (5항목)	평 균	4.33 (84.4%)	4.57 (92.7%)	4.36 (85.9%)	3.89 (69.3%)	4.24 (79.6%)
	본회의장시설	4.34 (87.4%)	4.62 (97.1%)	4.36 (88.5%)	3.94 (74.1%)	4.17 (81.0%)
	분과회의장시설	4.24 (80.2%)	4.50 (92.5%)	4.23 (80.8%)	3.86 (66.4%)	4.17 (70.5%)
	커뮤니케이션 시설	4.31 (82.6%)	4.53 (87.9%)	4.34 (84.8%)	3.91 (67.3%)	4.26 (80.0%)
	방음, 조명 및 음향시설	4.28 (83.6%)	4.50 (91.4%)	4.35 (86.7%)	3.81 (66.4%)	4.11 (75.3%)
	안전 및 보안 시설	4.47 (88.3%)	4.69 (94.8%)	4.50 (88.7%)	3.95 (72.1%)	4.48 (91.4%)
국제회의 운영수준 (8항목)	평 균	3.95 (65.5%)	4.20 (72.5%)	3.96 (66.8%)	3.38 (42.9%)	4.09 (71.2%)
	회의개최관련 안내자료제공 서비스시설	3.94 (69.1%)	4.17 (76.4%)	3.94 (70.5%)	3.28 (40.4%)	4.18 (80.0%)
	홈페이지 운영수준	3.93 (67.6%)	4.16 (73.0%)	3.92 (69.3%)	3.51 (49.1%)	4.07 (70.5%)
	등록데스크 운영의 효율성	4.12 (75.7%)	4.33 (78.7%)	4.16 (80.1%)	3.45 (48.1%)	4.27 (81.0%)
	공항영접 서비스	3.87 (66.6%)	4.29 (81.1%)	3.85 (66.9%)	3.15 (39.5%)	3.98 (68.6%)
	외국어서비스	3.49 (48.5%)	3.72 (54.6%)	3.49 (49.6%)	2.91 (25.0%)	3.65 (57.1%)
	행사게시판 및 안내표시시설	3.90 (62.5%)	4.13 (71.3%)	3.91 (61.9%)	3.35 (40.4%)	4.00 (71.4%)
	장애자시설 및 서비스	3.92 (50.7%)	4.08 (52.3%)	3.95 (52.8%)	3.45 (35.5%)	4.07 (54.2%)
	운영요원의 서비스	4.44 (83.3%)	4.74 (92.5%)	4.42 (83.0%)	3.94 (65.4%)	4.53 (86.7%)
회의관련 특별 이벤트 (6항목)	평 균	3.95 (55.4%)	4.24 (68.9%)	3.89 (54.1%)	3.45 (35.9%)	3.96 (57.2%)
	사교행사	4.11 (67.6%)	4.52 (86.7%)	4.05 (64.9%)	3.44 (33.7%)	4.17 (80.0%)
	동반자 프로그램	3.76 (33.3%)	3.92 (33.9%)	3.81 (34.9%)	3.19 (22.1%)	3.86 (37.2%)
	Pre & Post 투어	3.86 (41.8%)	4.10 (56.9%)	3.81 (38.3%)	3.50 (25.9%)	3.95 (45.7%)
	전시회	3.97 (60.0%)	4.31 (74.2%)	3.91 (58.2%)	3.63 (48.1%)	3.93 (55.2%)
	개막식행사	4.23 (68.0%)	4.52 (86.2%)	4.03 (67.3%)	3.68 (49.0%)	3.98 (59.0%)
	식음료서비스	3.77 (61.5%)	4.08 (75.3%)	3.74 (60.9%)	3.25 (36.5%)	3.86 (65.8%)

□ 참가자의 제반활동에 대한 만족도: 10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평 점	개 최 도 시 별			
			제 주	서 울	부 산	대 구
참가자 만족도 (10항목)	평 균	3.99 (73.0%)	4.20 (81.0%)	3.97 (73.0%)	3.64 (58.1%)	4.04 (74.5%)
	전반적 만족도	4.17 (86.3%)	4.32 (91.3%)	4.16 (87.2%)	3.93 (77.9%)	4.15 (82.9%)
	출입국절차	3.96 (71.3%)	4.29 (83.3%)	3.86 (67.5%)	3.58 (54.8%)	4.16 (81.9%)
	대중교통의 편리성	4.08 (74.4%)	4.30 (80.5%)	4.07 (74.7%)	3.71 (62.5%)	4.12 (74.3%)
	숙박	4.23 (82.7%)	4.53 (93.1%)	4.20 (82.3%)	3.95 (74.0%)	4.13 (75.2%)
	음식	3.91 (70.9%)	4.11 (80.5%)	3.90 (70.0%)	3.53 (55.7%)	4.01 (73.4%)
	쇼핑	3.80 (59.7%)	3.83 (56.4%)	3.85 (65.3%)	3.50 (48.1%)	3.83 (55.2%)
	국제회의 개최지매력도	4.07 (74.3%)	4.43 (88.5%)	4.06 (74.7%)	3.54 (50.9%)	4.00 (71.4%)
	개최지정보 입수의 용이성	3.99 (68.5%)	4.22 (77.6%)	3.91 (68.8%)	3.54 (49.1%)	4.07 (71.5%)
	재방문의사	3.69 (63.2%)	3.84 (71.8%)	3.65 (59.2%)	3.43 (53.8%)	3.83 (73.3%)
	추천의사	4.03 (79.1%)	4.16 (87.3%)	4.03 (80.3%)	3.66 (53.9%)	4.10 (85.7%)

□ 제주지역 회의 참가자 기타의견

구 분	항 목	비율 (%)	구 분	항 목	비율 (%)
인 상 깊었던 점	①사람들의 친절성	28.4	장 애 인 (복수 응답)	①언어소통	73.6
	②자연경관의 아름다움	21.3		②고물가	36.2
	③독창적인 문화유산	16.5		③표지판 이해불가	21.8
	④국제회의시설의 우수성	9.7		④음식의 맛	14.9
	⑤안전한 환경	8.2		⑤교통혼잡	6.3
	⑥국제회의 운영능력의 탁월성	5.4		⑥대중교통이용	5.7
	⑦음식의 맛	4.2		⑦음식점의 질 낮은 서비스	4.0
	⑧활기가 넘침	3.6		⑧호텔예약	4.0
	⑨쇼핑의 편리성	2.0		⑨관광안내소 서비스	3.4
	⑩야간활동	0.2		⑩불친절한 택시기사	2.9
	⑪기타	0.5		⑪관광종사원의 불친절	1.7
				⑫기타	4.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등록일: 2008.04.18)

[해외동향] 美 크루즈산업, 올해에도 전망 낙관

- 성장 유망산업으로 크게 인기 지속 -

(고광욱 마이애미 무역관(kkw0609@kotra.or.kr) | 보고일자: 2008.3.26)

□ 올해 총 1280만 명 이용 예상, 유럽시장 급성장

- The Cruise Lines Int'l Association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도 크루즈 산업에 대한 2008년도 전망은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마이애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Celebrity Cruises 등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회장단은 연례 모임을 갖고, 미국이 최근 주택경기 부진·신용제한·달러화 약세·고유가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불경기를 이겨나간 경험이 있으며, 세계시장을 놓고 볼 때 2008년도 크루즈 산업은 전년대비 더 활기찬 페이스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Carnival Cruise Lines 회장 Gerald Cahill에 의하면, 크루즈 산업이 불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않겠지만 경기 하강국면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무던 산업으로 평가하고, 이는 미국인들이 다른 비용은 줄이더라도 크루즈만이 갖는 어떤 매력 때문에 이 산업의 비용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실제로 1980년 이후 지난 25년간 크루즈 산업은 연평균 7.6%의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 오고 있음.
- 2008년도 크루즈 예상 이용객은 1280만 명에 달할 전망이어서 전년 1260만 명 대비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 특히 2000년도 이후 유럽이 크루즈선 주요 성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연도별 크루즈선 이용객 추이〉

(단위: 1000명)

연도별	North America	Foreign	World
1980	1,431		
1990	3,496	278	3,774
1995	4,223	498	4,721
2000	6,546	668	7,214
2005	9,671	1,509	11,180
연평균 증가율(%)			7.6

자료원 : The Cruise Lines Int'l Association

□ 2012년까지 220억 달러 투입, 총 36척의 신규 크루즈선 운항

- 한편 크루즈 업계는 2008년도 8척의 신규 크루즈선을 추가로 운항할 계획이며 오는 2012년까지는 220억 달러를 투자, 총 36척의 신규 크루즈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됨.

□ 크루즈산업 성장은 유류 절약이 관건

-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에도 몇몇 CEO들은 유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유류 절약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크루즈선 스피드 조절
 - 정박 시 엔진 미작동
 - 운항일정 조정

□ 민간투자자, 크루즈산업을 전보다 강한 산업으로 전망

-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하강국면에도 민간부문 투자자들은 크루즈 산업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뉴욕의 Apollo Management사의 경우 최근 마이애미 크루즈 오퍼레이터에게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50% 주주로 참여하고 5년 후에는 자본금이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크루즈 산업은 종전보다 강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 실제로 마이애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Carnival사의 경우 2008년 1/4분기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했으나 총 판매고는 31억5000만 달러로 오히려 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물론 순이익 감소 주요인은 2007년 1/4분기 301달러/MT하던 병커유가 올해 499달러로 인상됐기 때문임.
- 올해 남은 기간 예약상황이 전년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유로화의 강세에 힘입어 유럽인들의 캐리비안 크루즈 수요가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자연잔디, 개인용 스파 시설 설치 등 안락한 분위기 조성

- 크루즈 업계에서도 향후 20년 후 크루즈산업의 대변화를 예상하고 기존 육상 휴가자들을 바다로 끌어 들이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함께 크루즈 이용객들에게 더 안락한 느낌을 주도록 내부 개조 및 개인용 스파 시설·크루즈선 내 자연잔디 설치 등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음.

※ 자료원 : The Cruise Lines Int'l Association, Miami Herald,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KOTRA, 무역투자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등록일: 2008.03.27)

[해외동향] 멕시코,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육성 노력

- 4위에 해당하는 주요한 외화 수입원 -
-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 관광객 유입 증가세 감소 우려 -

(황정한 멕시코시티 무역관(lewisnjoy@kotra.or.kr) | 보고일자: 2008.3.26)

□ 멕시코, 관광산업 동향

- 멕시코는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한 관광지역으로 이름나 있고, 멕시코의 관광산업은 관광객 유입인구 수 기준으로 매년 약 1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함. 또한 주요한 외화 획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2007년 기준으로 129억 달러를 관광으로 벌어들이고 있음. 이는 석유(429억 달러), 본국 송금액(240억 달러), 해외직접투자(232억 달러)에 이은 4번째 주요 외화 획득원임.
- 멕시코의 관광수입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7년의 경우 129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얻어 전년대비 6%의 증가를 보였으며, 관광수지 면에서는 11.2%가 증가해 멕시코인의 관광지출보다 관광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수지가 이를 완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2007년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는 111억 달러인 반면, 45억 달러의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월별로는 1~3월까지가 가장 많은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며, 12월과 3월에 가장 많은 수의 관광객이 멕시코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관광객의 경우 1인당 멕시코에서 484.9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2004년의 평균 지출액인 406.6달러 보다 19.3%가 증가한 것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더 많은 지출이 이뤄지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연도별 관광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2004	2005	2006	2007
수입	10,796	11,803	12,177	12,901
지출	6,959	7,600	8,108	8,378
관광수지	3,837	4,403	4,068	4,523

자료원: 멕시코 관광부(SECTUR)

□ 국가별 멕시코 관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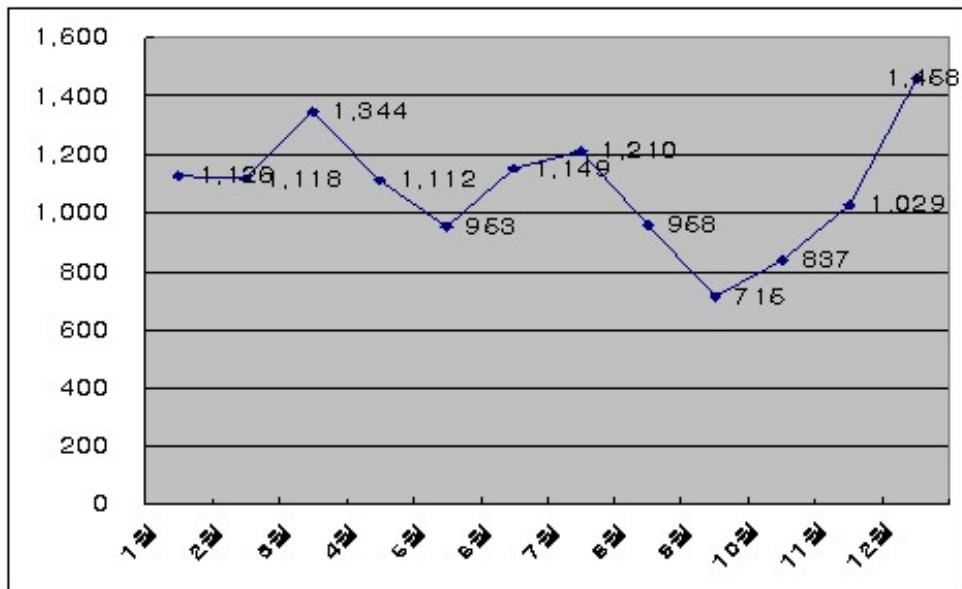
- 현재 국별 관광객 유입인구를 보면 미국 관광객이 전체의 67.91%를 차지하고, 캐나다의 관광객이 7.32%를 차지해 북미지역이 멕시코 관광 유입인구 전체의 75.23%를 점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영국·스페인·프랑스 등 유럽의 관광객이 11.08%를 차지하고 있음. 전반

적인 관광객 유입 증가율은 2007년에 전년대비 3.19%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미국 관광객 증가율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멕시코 북부지역의 치안 문제를 원인으로 볼 수 있음.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의 멕시코 방문인구 수가 2007년에 전년대비 5.3% 감소했으며, 북부지역의 육로로 유입되는 관광객은 전년대비 4.53% 감소했음.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미국 거주 멕시코인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국발 송금액의 감소 추세와 동일선상에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 등으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 이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함. 멕시코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관광객 유치에 위해서 우선해야 할 것이 인프라 구축 및 치안 확보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음.

〈2007년 월별 관광객 유입 동향〉

(단위: 천 명)



자료원: 멕시코 관광부(SECTUR)

- 우리나라 관광객도 2007년 약 3만7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멕시코 관광부(SECTUR)는 집계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대비(2006년 한국인 방문객 3만1000명) 22.41%나 증가한 것으로 점차 멕시코를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임. 또한 북미와 유럽의 기존 국가들에 비해 중남미 국가의 관광객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Banamex (Citi Group)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각 주별 국민총생산(GDP) 증가율이 관광산업이 발달한 Quintana Roo와 Baja California Sur주가 각각 8.4%와 7.2%로 1, 2위를 나타냈는데, 이는 멕시코 전체의 경제성장율인 3.3%를 훨씬 뛰어 넘은 것임. 이는 지속적인 관광산업 발전과 함께 이 지역의 관광관련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해외 관광객 유입 추이〉

(단위: 천 명)

순위	국가	2006년	2007년	증가율	점유율
1	미국	8,765	8,834	0.79	67.91
2	캐나다	785	952	21.31	7.32
3	영국	260	286	10.11	2.20
4	스페인	261	280	7.13	2.15
5	프랑스	173	191	10.78	1.47
6	이탈리아	163	166	2.11	1.28
7	독일	135	152	12.54	1.17
8	아르헨티나	84	112	32.61	0.86
9	네덜란드	70	73	4.04	0.56
10	일본	69	72	4.16	0.55
11	베네수엘라	38	62	64.46	0.48
12	콜롬비아	36	59	64.28	0.48
13	브라질	32	58	81.35	0.44
14	칠레	41	54	31.60	0.42
15	쿠바	27	39	45.97	0.30
16	포르투갈	31	38	23.84	0.30
17	코스타리카	28	38	33.60	0.29
18	한국	31	37	22.41	0.29
19	과테말라	31	37	17.71	0.28
20	벨기에	28	31	12.62	0.24
-	기타	1,519	1,438	-5.33	11.01
	합계	12,607	13,009	3.19	100

자료원: 멕시코 관광부(SECTUR)

□ 멕시코 관광산업의 경쟁력 수준

- 이러한 상황에도 멕시코의 관광산업 경쟁력은 타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08년 관광 경쟁력지수에서 4.18점(1~7점)에 그쳐 130개국 중 55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이전보다 6계단 하락한 수치임(이전 4.38점, 49위).
- 멕시코는 문화 인프라 면에서는 6위를 차지했으나, 공공치안에선 122위·공항세 129위·숙박비용 67위 등 기본적인 인프라 측면에선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음. 특히 치안은 베네수엘라(125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망 및 시사점

- 멕시코의 관광산업은 현 정부가 전략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치안 확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임. 또한 관광산업이 고용증진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관광산업 고용인구가 2006년 222만에서 2007년 236만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그리고 유럽과 미국 투자자들의 멕시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2007년에 이미 전년대비 11.12%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하반기부터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올해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지속과 중국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음. 그러나 멕시코의 문화적·자연적 인프라와 도로·숙박·레저 시설에 대한 투자로 인해 관광산업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멕시코 국민의 관광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미국의 여행업계에서는 이런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 및 북미지역의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현지 진출해 있는 여행사들과 협력하는 것도 멕시코 관광시장 진출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료원: 멕시코 관광부(SECTUR),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무역관 분석 종합

(KOTRA, 무역투자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등록일: 2008.03.27)

[해외동향] 스페인 빌바오시 문화마케팅 도시재생 프로젝트

□ 추진배경

- 빌바오는 철강과 조선의 중심지로 한때 스페인 최고의 산업중심지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산업침체로 급격한 쇠퇴를 하고 있는 도시를 재생하고자 문화마케팅 도시재생 전략 도입

□ 사업목표

- 문화와 예술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

□ 사업내용

- 문화와 예술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 구성 (빌바오 메트로폴리 30, 빌바오 리아 2000)
 - 1991년 말 빌바오 메트로폴리 30 구성
 - 이 연합의 목표는 도시 재활성화 과정에 공공 및 민간의 활동 참가를 유도
 - 1992년 12월 중앙정부와 바스크 행정부는 “빌바오 리아 2000”을 만드는데 동의
 - 민간회사지만 공공자원을 사용하여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

- “메트로 폴리탄 빌바오 계획” 수립
 - 계획의 주 목적은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도시 환경의 질을 개선
 - 구체적인 사업으로 대도시 금융 재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문화적 지역을 수립
 - 구겐하임 미술관, 오스칼두나 회의장, 오페라 하우스, 쇼핑센터 등 건립
 - 특히 1997년 건립된 구겐하임 미술관은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이 없이 공공부문의 투자에 의해 건립되어 바스크 지역의 재정자립의 상징이 됨.

□ 사업효과

- 구 산업 지역 재생, 역사적 중심지의 재건
- 메트로시스템, 박물관, 오페라하우스, 컨벤션 센터, 새 공항, 빌바오 항구의 확장
- 특히 구겐하임 미술관 개장으로 외국인 관광객 44% 증가
-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도시 환경의 질 개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해외우수행정사례」, 유렵사무소 | 등록일: 2008.04.01)

[언론동향] [전시·컨벤션 미래 성장동력이다] ① 세계는 컨벤션 전쟁 중

굴뚝없는 ‘황금산업’ 컨벤션이 질주한다

홍콩, 5조8천억 규모 호텔 숙박업 세금 완전 폐지

아시아는 중국 중심으로 재편…일본, 1위서 밀려

글로벌경제가 급진전되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위한 컨벤션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컨벤션산업은 친환경적이고 미래형 지식기반산업의 특성을 지닌 데다 경제적 효과가 커 세계 각국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컨벤션산업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가 융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미 컨벤션 선진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마이스(MICE)라 부른다.

우리나라 컨벤션산업도 많이 성장했다. 2006년 현재 353회 전시회를 개최했고, 국제회의는 185회에 달하며 해마다 놀라운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 전시컨벤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홍콩정부는 세계 전시컨벤션업계가 깜짝 놀랄만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홍콩을 전시컨벤션, 관광도시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담고 있다.

홍콩정부는 총 10군데 호텔 전용 부지를 지정하고, 연간 470억 홍콩달러(5조8891억원) 규모의 호텔 숙박업 세금(3%)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화주를 제외한 와인 맥주와 알코올음료의 세금도 면제했다. 특히 국제회의, 전시, 관광 중심의 도시로 육성, 경쟁력 강화와 행사유치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억 홍콩달러(1조8795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4월 1일부터 법인세 (16.5%), 소득세 (15%)도 감면했다.

최근 마카오가 전시컨벤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들어선 종합카지노리조트 '베네시안 마카오(Venetian Macau)'를 비롯해 관광, 카지노, 컨벤션, 쇼핑을 융합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전시장들이 들어서고 있다. 마카오 전시컨벤션협회에 따르면 베네시안은 지난해 10월 켄페어의 메가쇼를 시작으로 앞으로 2년간 44개 전시회 개최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다. 지구촌 최고의 컨벤션 도시를 꿈꾸는 마카오 당국은 2010년에는 500여개의 국제전시회와 컨벤션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는 2008년 전시회 수입은 3억6800만 마카오달러(4740만 달러), 2010년 전시회 수입은 6억2200만 마카오달러(8011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시산업의 성장률은 2010년까지 30%, 2015년까지는 20%, 성숙기인 2020년에는 1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시산업의 성장세 지속

세계 전시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 홍콩, 인도 등 아시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전시산업연구센터(CEIR)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세계적으로 약 1만3000건의 전시회가 개최됐다.

독일은 세계유명전시회의 2/3를 개최하는 전시산업의 메카다. 연간 150회 이상의 대형전시회가 열리고 17만개 업체 이상이 전시회에 참가, 1000만 명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 독일전시산업협회(AUMA)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 25억 유로의 판매수입을 올리고, 250억 유로 이상의 직접생산효과를 올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대형화, 국제화를 추구하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부터 242회의 국제회의를 개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 전시컨벤션도 231회를 열어 아시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총 전시면적은 연간 20~30% 성장해 2006년에는 260만㎡를 보유, 우리나라 전시면적의 15배에 달한다.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지역도 페르시아만 협력회의(GCC)의 정치 경제통합 흐름에 따라 전시회와 회의컨벤션산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2007년 1월 현재 총면적 24만3300㎡ 규모의 16개 컨벤션센터가 있다. 두바이에 신축중인 컨벤션센터는 한 변의 길이가 1020m로 총면적 12만㎡에 이른다. 이 지역에는 2009년까지 4곳에 새로운 전시장이 개장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2006년 289회의 무역전시회가 열려 2002년 이후 연 40% 이상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회의가 주를 이루는 회의컨벤션도 통합화, 대형화되고 있다. 국제회의에 대한 종합 자료를 총괄하는 UIA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연간 8871회의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계 10대 국제회의 주최도시들도 최근 10년간 집중화, 통합화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져 개최횟수에 따른 부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선두로 나서 아시아시장의 판도는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경제파급효과 커 경쟁 치열

무역과 관광도시인 홍콩, 카지노의 도시 마카오가 전시컨벤션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컨벤션산업이 고용창출이 높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컨벤션산업은 대형 회의장이나 연회장, 전시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대규모 국제회의나 전시

회를 유치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산업이다. 컨벤션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보다 많은 돈을 쓰는 VIP고객으로 머무르는 기간이 길고 지출도 많아 호텔, 식음료, 관광, 항공 등 관련 서비스 산업에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컨벤션 참가 외국인 1명의 평균 소비액은 2366달러로 21인치 컬러 TV 14대 수출액과 맞먹는다. 3명이 참가하면 1500cc 승용차 1대 수출액에 버금간다. 일반 관광객의 1.9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9월 초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폐암학회 학술대회'의 경제적 효과는 1500cc급 자동차 2000대를 수출한 규모와 비슷하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5000명 가까운 전 세계 폐암 전문가들로 인해 주변 특급호텔 객실이 모두 찼다. 코엑스는 이번 행사로 2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외국인 참가자가 직접 지출한 200억원을 포함해 약 83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컨벤션산업이 '서비스 산업의 꽃'으로 불리며 굴뚝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일신문, 김형수 기자(hskim@naeil.com), 2008-04-10 오후 2:11:41)

[언론동향] [전시·컨벤션 미래 성장동력이다] ② 국내 컨벤션산업의 현주소

전시면적 증가에도 수익성 악화

국제회의 개최 세계 16위, 전시면적 2014년 53만㎡

전문시설·인력 부족...전시공간 홍콩의 39%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지역의 리츠칼튼, 라마다호텔, 인터컨티넨탈 등 특급호텔 객실은 이미 예약으로 꽉 찼다. 5000명 가까운 전 세계 폐암 전문가들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모여들었다. 세계폐암학회 학술대회 때문이다. 전체 회의가 열리는 컨벤션홀은 50여개 나라에서 참가한 외국인들로 북적였다. 이 행사에 외국인만 4600여명이 등록했다. 동반 가족과 전시업체, 기타 대회 관계자까지 합치면 6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한 셈이다.

코엑스는 이 행사로 2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외국인 참가자가 직접 지출한 200억원을 포함해 약 83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세계 10대 국제회의로 꼽히는 세계 피부과총회가 2011년에 코엑스에서 열린다. 4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는 세계 피부과 의사와 교수, 가족 등 1만 8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엑스는 참석자들이 숙박비, 관광, 쇼핑 등으로 한국에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646억원에 이르고 이는 자동차(1500cc 기준) 6000대 수출과 맞먹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행사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는 2456억원, 이로 인한 고용 효과는 1만 9893명으로 추산했다.

코엑스는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내 특1급 호텔 객실이 모두 1만 6000여개에 불과해 세계피부과학회 참석자들이 묵을 객실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엑스는 중급 호텔과 대학 기숙사 등은 물론 템플스테이, 홈스테이까지 활용해 참석자들의 숙박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다.

해마다 성장 거듭

우리나라 컨벤션산업은 해마다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6년 현재 353회 전시회를 개최했고, 국제회의는 185회에 달한다. 회의컨벤션은 1990년 세

계 25위권에 머물렀으나 2006년에는 세계 16위로 부상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3위다. 1997년부터 2006년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개최 성장률은 95%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참가자 300명 미만의 중·소규모 국제회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서울은 2004년 109회를 개최하면서 세계 10위 도시에 진입했다. 2005년 103회를 기록했다. 전시컨벤션센터 시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6년 현재 10개 전시컨벤션센터에 총 전시 가능면적은 17만 6582㎡다. 최근 건립된 대전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인천송도컨벤션센터(10만㎡)가 완공될 예정이다.

코엑스도 올해까지 추가로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을 1만 5000㎡로, 킨텍스는 2010년까지 현재와 비슷한 규모(6만 1000㎡)의 제2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국내 총 전시가능면적은 46만㎡, 2014년에는 53만㎡에 이르게 된다.

전시면적, 홍콩의 39%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컨벤션산업은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가동률과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가용면적의 경우 2001년 9만 5602㎡에서 2005년 16만 6554㎡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평균가동률은 2001년 42.1%에서 2005년 47.6%로 겨우 5.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위치한 국제컨벤션센터(ICC), 창원컨벤션센터(CECO), 김대중센터(광주), 대전무역전시관(KOTREX)은 가용면적에 비해 실제 전시회수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컨벤션산업의 선두주자인 코엑스는 많은 수요로 72.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나 시설을 확장하지 않아 컨벤션과 전시공간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전시회당 전시면적을 살펴보면 한국은 3,706㎡로 경쟁국인 중국의 절반, 홍콩의 39%에 불과하다. 수익성은 전시회당 전시면적과 전시회당 매출액이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시면적당 매출액은 아시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상태로 열악하다. 전시면적당 매출액은 아시아 평균보다는 12.5% 높지만 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각각 37.5%, 24.9%로 낮은 수준이다. 수익성을 추정하는 기준인 전시회당 매출액은 홍콩의 1/3에 불과하며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

회의컨벤션산업은 전문시설과 전문인력, 종합적인 운영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컨벤션센터와 컨벤션 뷰로(회의유치나 개최 도시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무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컨벤션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국제회의와 전시컨벤션으로 이원화돼 있다. 관련 법률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전시산업에 관한 법률'로 나뉘어져 있다. 이는 최근 컨벤션산업이 회의와 전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지원제도와 담당 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윤승현 한남대 교수는 "세계 각국은 경제적 가치가 큰 컨벤션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컨벤션산업이 밀리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김형수 기자(hskim@naeil.com), 2008-04-15 오후 2:17:04)

[언론동향] [전시·컨벤션 미래 성장동력이다] ③ 컨버전스가 미래의 길

컨벤션에서 'MICE' <전시·회의·관광·오락의 합성어> 산업으로 발전

세계는 전시·회의·관광·오락 결합한 종합서비스 추세

민관협력 네트워크 절실...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뉴욕을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파리가 전시·컨벤션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컨벤션이란 2012년 여수 세계엑스포 같은 초대형 박람회를 비롯해 국가 정상회의, 각종 국제회의, 상품 지식 정보 등의 교류 모임, 각종 이벤트, 전시회를 일컫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일씩 체류하는 까닭에 컨벤션은 항공, 관광, 숙박, 식음료, 레저 등을 비롯해 고용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부에 따르면 여수 세계엑스포를 개최할 경우 생산 유발효과 10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원, 고용 유발효과 9만명 등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선진국들은 전시·컨벤션산업을 기업회의(Corporate Meeting)와 보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종합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는 이를 '마이스(MICE)산업'이라 부른다.

문화체육관광부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마이스(MICE)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유치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전시·컨벤션산업이 MICE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앞서가는 컨벤션 선진국

싱가포르는 BT MICE를 컨벤션산업군으로 분류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BT MICE는 MICE에 비즈니스 관광을 포함한 의미다. 이를 통해 매년 40억 싱가포르 달러(약 2조 70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와 컨벤션 기업들의 파트너십 협력이 싱가포르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정부차원에서 글로벌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관광개발기금을 조성해 행사를 유치한 기관이나 주최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협회와 기업, BT MICE 관계자, 정부를 클러스터로 묶어 컨벤션 생태계로 구축하고 있다.

컨벤션 세계 1위 도시인 프랑스 파리는 올해 초 11개 컨벤션센터를 하나로 통합, 'VIParis (Venues In Paris)'라는 단일 브랜드로 운영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경쟁을 막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11개 컨벤션센터가 공동 마케팅을 벌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관광, 숙박 등 사업과 연계해 컨벤션산업을 대형화하고 있다.

도박도시로 유명한 미국 라스베이거스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세스(CES)' 등 연간 2만 4000개에 육박하는 컨벤션을 개최하고 있다. 컨벤션 관련자는 연간 630여만명에 이르고, 관광 경제적 효과는 394억 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라스베이거스의 컨벤션 성공원인으로 가격(Price),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오

락(entertainment)을 꼽는다. 저렴한 숙박비, 세계적 관광지, 즐길 수 있는 오락문화가 완벽히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을 배후로 아시아 최고의 MICE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다. 항공, 호텔, 교통 등 첨단시설을 기반으로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다. 쇼핑과 다양한 먹을거리, 오락을 낮은 물론 밤에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배후지역인 중국과 마카오를 충분히 활용해 경쟁력을 높였다. 홍콩과 마카오는 최근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양 도시에서 방문한 바이어와 업체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비공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은 컨벤션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브릭스와 중동지역의 걸프연안 6개국(GCC) 국가들이 경비보조, 세금감면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성공적인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와이 컨벤션센터의 경우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PCMA 총회를 위해 장소를 무료제공하고 식음료, 숙박, 교통 등을 20% 할인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연간 500명 이상의 외국인인을 유치한 국내외 관광사업체의 법인소득세를 면제했다. 행사홍보, 기념품 제공, 문화공연 지원 등 비재정적 지원도 상당하다.

지난 2월 홍콩 정부는 10군데 호텔 전용 부지를 지정하고, 호텔 숙박업 세금(3%)을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화주를 제외한 와인 맥주와 알코올 음료의 세금도 면제했다. 특히 국제회의, 전시, 관광 중심의 도시로 육성, 경쟁력 강화와 행사유치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억 홍콩 달러(1조 8795억원)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4월 1일부터 법인세(16.5%), 소득세(15%)도 감면했다.

◆ 전시산업 육성법 없어

반면 우리나라 사정은 열악한 상황이다.

배병관 코엑스 사장은 “세계적 추세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등을 관광과 함께 결합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윤승현 한남대 교수도 “컨벤션산업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도시홍보,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면서 “컨벤션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외 홍보활동, 관광, 숙박, 항공 등 연관된 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법인세 감면이나 세액공제가 전무하며, 제조업과 비교해 혜택이 거의 없다.

업계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열리는 컨벤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수도권 업체들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외 바이어 유치에 사용된 항공비나 숙박비, 해외 참가업체와 참관객 모집을 위한 해외 광고비나 프로모션비용, 해외 연사 초빙에 들어간 항공료, 숙박비, 강연료 등이 세액공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엑스 관계자는 “컨벤션산업은 사람유치가 목적인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면 교통유발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도 경쟁국들에 비해 국제적인 대표 전시회가 없고 전시장 면적, 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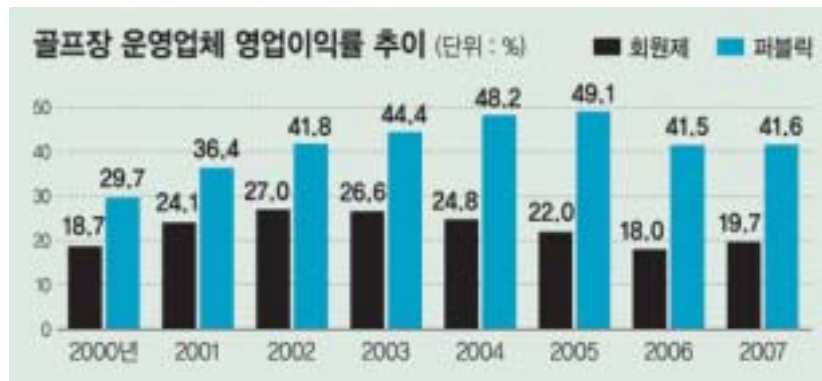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다. 따라서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2년까지 TOP브랜드 전시회 2~3개 육성과 함께 전시장 확장, 전시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시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전시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나설 뜻을 밝혔다.

(내일신문, 김형수 기자(hskim@naeil.com), 2008-04-18 오후 1:05:17)

[언론동향] 골프장 '좋은 시절' 다 지나갔나

1999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 이래로 호황을 누려온 골프장 산업이 지난해에도 흑자 경영을 기록했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2007 골프장 업체들의 경영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전에 오픈한 전국 101개 회원제 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영업 이익÷매출액)은 19.7%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18% 대비 1.7% 상승한 수치지만 정점이었던 2002년의 27%에 비해 7.3% 하락한 수치다. 2006년 이전 개장한 28개 퍼블릭 코스를 대상으로 분석한 퍼블릭 골프장의 영업 이익률은 41.6%로 집계돼 2006년 대비 0.1% 상승했지만 가장 큰 이익률을 냈던 2005년(49.1%)에 비해서는 7.5%나 하락했다.



이처럼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까지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골프장이 줄줄이 그린피 인상에 동참한데다 1999년 처음으로 내장객 1000만 명 시대(1043만 6309명)를 맞은 이래 지난해 2234만 3079명이 골프장을 찾는 등 골프장 이용객수가 매년 증가했기 때문이다.

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매출액은 160억 8500만원이며 회원제 골프장 중 가장 큰 이익률을 낸 골프장은 이익률이 68.3%에 달한 경기도 가평의 썬힐골프클럽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서라벌CC(49.1%), 시그너스CC(41.2%), 도고CC(39.4%), 88CC(38.4%) 등이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18홀 기준 평균 매출액은 108억으로 집계됐으며 68.2%의 영업이익률을 낸 중원CC가 1위에 올랐고 한탄강(63.6%), 베어크리크(60.6%), 아네스빌(56.7%), 용인(55.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지역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영남권이 2006년 대비 4.3% 늘어난 21.3%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제주권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05년 8.2%로 처음으로 적자를 낸 이래 지난해 29.4%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복이 엇갈렸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서천범 소장은 이에 대해 "1999년 10월 골프 대중화가 선언된 이래 골

프 인구가 크게 늘어났고 골프장 사업도 호황을 누려왔다”면서 “그러나 올해만 해도 골프장 50개가 신규 오픈하는 한편 2011년까지 532개까지 골프장이 늘어나는 등 골프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제주, 전라도 등 지방 골프장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이지연기자(easygolf@fnnews.com), 2008-04-17 20:30:49)

[언론동향] 지방골프장 가격경쟁력 'UP'

지방의 경우 퍼블릭 그린피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이 이르면 6월 초부터 지방 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폐지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이 법안이 제외됨에 따라 향후 수도권과 지방 골프장 간 그린피가 무려 곱절 가까이 차가 날 전망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1일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폐지될 경우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 차이가 더 확대돼 가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퍼블릭 골프장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악화돼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에 부과되는 폐지 대상 세금은 부가가치세 10%를 비롯,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농어촌특별세 각 360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으로 이를 폐지할 경우 적게는 3만2700원에서 많게는 3만9900원까지 그린피가 인하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주중 5만5000원, 주말 4만6000원인 수도권과 호남권의 그린피 차이가 주중 8만8000원, 주말 8만3000원까지 확대되면서 수도권에서 한번 플레이하는 비용으로 호남권에서 두 차례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회원제	현 재	주중	17만3100	15만1300	14만9300	11만8200	14만4700	10만2900
		주말	21만2200	19만7200	19만4600	16만5900	17만5500	13만8300
	개별소비세 인하액	주중	-	3만5700	3만5500	3만2700	3만5100	-
		주말	-	3만9900	3만9600	3만7000	3만7900	-
	폐지 시 입장료 예상	주중	17만3100	11만5600	11만3800	8만5500	10만9600	10만2900
		주말	21만2200	15만7300	15만5000	12만8900	13만7600	13만8300
퍼블릭골프장	주중	13만3000	11만800	11만2300	8만300	9만6600	-	
	주말	17만5700	14만7000	15만9800	12만3800	13만4600	-	
회원제-퍼블릭 차액	주중	4만100	4800	1500	5200	1만3000	-	
	주말	3만6500	1만300	-4800	5100	3000	-	

* 2008년 4월 기준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반면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 간의 그린피 차이는 거의 없어져 충청권 회원제 골프장의 주중과 주말 그린피는 각각 11만3800원과 15만5000원, 퍼블릭 골프장은 11만2300원과 15만9800원이 되는 등 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에 비해 오히려 더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까지 빚을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향후 개별소비세 등이 폐지되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가

격 경쟁력은 회복되는 반면 퍼블릭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회원제와 퍼블릭 골프장 간의 가격 인하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 장기적으로는 골프를 좀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파이낸셜 뉴스, 이지연기자(easygolf@fnnews.com), 2008-04-21 16:56:24)

[언론동향] 골프장協 '불어라~ 골프 한류 바람'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가 관광수지 적자폭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골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우 회장이 1차로 공략한 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다렌 CC)이 소재하고 있는 중국 산둥성 다렌시(인구 560만명)와 랴오닝성(4200만명).

22일 협회는 우 회장이 중국인 골퍼의 한국 골프장 유치를 위해 현지를 방문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끝내고 21일 귀국했다고 밝혔다.

우 회장의 이번 방중은 최근 골프장에 대한 감세정책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국내 골퍼의 발걸음을 줄이고 해외 골프 관광객을 유치해 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협회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

국 가 별	총 출국인	골프투어	비율
중국	4,004,285	800,857	20%
일본	2,391,776	239,177	10%
태국	881,205	105,744	12%
필리핀	586,396	58,639	10%
베트남	373,126	18,656	5%
말레이시아	180,541	9,027	5%
기타	4,232,671	42,326	1%
합계	12,650,000	1,274,426	

* 2007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수요 예측 자료 인용

우 회장은 방중 기간 중 전 다렌시장인 랴오닝성골프협회 이영금 명예주석과 만나 비자문제 등 중국 골퍼의 한국 골프장 관광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 한국 골프장을 방문하기로 한 이 명예주석은 베이징에서 중국골프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골프관광 설명회를 열 것을 약속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 안대환 전무는 “협회는 향후 중국인 골프 관광객 유치 설명회를 중국 골퍼 밀집지역인 베이징과 상하이로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중국정부 고위 관계자 면담을 통해 중국 골퍼의 한국 골프투어에 따른 필요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중국은 물론 일본 골프관광객의 한국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광협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골프장 홍보책자를 현지어로 발행하는 등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25일에는 재일본한국인골프협회에서 원선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이 우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 뉴스, 정대균기자, 2008-04-22 16:34:15)